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32호 【루계 제24545호】 주체103(2014)년 5월 12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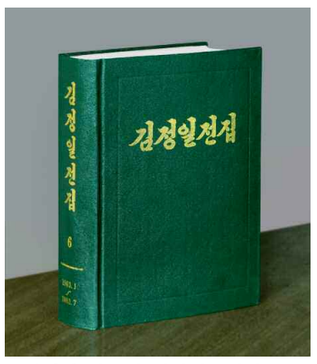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인터네트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에서 4월 21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의 전문을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김정일전집》 제6권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년대순에 따라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총서인 《김정일전집》 제6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52(1963)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연설, 담화 등 99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여있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이 제시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에서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어버이수령님을 충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특출한 지위를 차지하고 특출한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수령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뇌수의 지위를 차지하며 인민대중을 령도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시여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며 완벽한 해명을 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혁명전사의 참된 행복은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계속혁명사상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로작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한몸바치는것은 혁명전사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출발점,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리론과 계속혁명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의 독창성을 옳바로 인식하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투쟁해나갈데 대한 과업 등이 반영되여있다.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조국의 령공을 철벽으로 지키는 하늘의 결사대가 되자》 등의 로작들에는 조선인민군을 사상과 신념의 강군,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가 빛나고있다.

로작들에는 모든 군인들이 강의한 혁명정신과 백발백중의 사격술, 기묘한 전법, 튼튼한 체력을 가졌을 때 일당백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있으며 당의 군사사상과 로선을 지침으로 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얄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몇가지 방도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견결히 옹호하자》를 비롯한 로작들에서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명시하시고 인민경제 부문별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한 문제들이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과학을 탐구하자》, 《지덕체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선수를 많이 키워내야 한다》, 《영화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민속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 폭넓게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미제의 〈기본전략〉을 파탄시켜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을 떠난 평화는 있을수 없다》, 《제국주의적〈원조〉의 침략적, 략탈적본질에 대하여》 등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책동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여 그를 단호히 짓부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받들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침들을 밝힌 로작들이 전집에 수록되여있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당생활총화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 계급교양, 반수정주의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유자녀들을 당의 핵심으로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이며 완벽한 해답을 준 로작들이 편집되여있다.

《김정일전집》 제6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전사회적으로 책읽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온 사회에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이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서는 일할수도 전진할수도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며 책읽는 운동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전인민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책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말없는 스승이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길동무, 사상정신적량식이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책을 통하여 투쟁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되며 문화적소양도 높이게 된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혁명을 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일생동안 책을 읽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에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것으로부터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과 경쟁속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다. 적들과의 싸움은 곧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다. 수령의 혁명사상,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은 절대로 굴복시킬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이 전사회적으로 책읽는 기풍,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바로 천만군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준비시켜 반사회주의압살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제국주의반동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승하고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있다. 혁명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사상정신적로쇠와 변질을 모르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을 따라 애국충정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갈수 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은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샘줄기가 없는 곳에 양어장을 꾸리면 인차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것처럼 사람이 책을 보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만다.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인재로서 시대와 조국이 필요로 하고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례외없이 책읽기를 자기의 생활상요구로 내세우고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열정적인 독학가들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지식의 힘에 의하여 지난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있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지식의 갱신주기가 빨라지고있는 오늘날 지식의 저장고인 책을 읽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시대에 따라설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야 우리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다. 아는것이 힘이고 지식이 광명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전체 인민이 마음껏 학습하고 책을 볼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여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책읽기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누구나 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 당에 충실할수도, 애국을 할수도 없으며 값높고 보람찬 삶도 누릴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혁명실록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여기에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 고귀한 투쟁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누구나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 성스러운 혁명실록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들 특히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와 내용을 환히 꿰들어야 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신조로 삼아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또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과 현대과학기술, 풍부한 상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읽기를 많이 하여야 한다.

전공분야의 자질이 높아야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다. 누구나 자기 전문분야에 관한 책들을 계획적으로, 일상적으로 읽어야 한다. 언제나 시대적추세에 민감하고 전공분야의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책읽기에 품을 들여 당에서 그 어떤 어려운 과업을 맡겨주어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수행할수 있는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도서들과 혁명소설들,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력사에 대한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어 일반지식수준과 상식을 넓히고 문화적소양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책읽기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열적으로 꾸준히 하여야 한다.

목표와 단계를 명백히 세워놓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는 방법으로 책을 읽어야 재미도 있고 성과도 거둘수 있다. 목적과 사색이 없는 독서는 머리쉼이지 독서가 아니다.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서에서 형식주의를 없애고 책을 한페지 읽어도 혁명임무수행에 필요한 산지식을 얻을수 있도록 깊이 파고들면서 실속있게 읽어야 한다.

정열가가 되여야 다독가가 될수 있고 여러 분야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내용을 깊이 파악할수 있다. 누구나 짬만 있으면 책을 한페지라도 더 읽기 위하여 노력하며 출퇴근길과 뻐스정류소에서도 신문이나 책을 읽는것을 습성화, 체질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우는데서 일군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책읽기에서 모범이 되고 요구성을 높여야 온 사회에 책읽는 기풍이 확립될수 있다. 일이 바빠 여유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설사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지 않는 법이다. 사업을 계획적으로 짜고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얻어낼수 있다. 일군들은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임무로, 필수적요구로 간주하고 더 많은 책을 읽어 전진하는 대오의 기수, 기관차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독서계획을 바로세우고 잠을 좀 못 자고 휴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날 책읽기과제는 반드시 그날에 수행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속에서 책읽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선군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이다. 우주로케트가 창공을 날고 CNC기계바다가 펼쳐지고있는 오늘에는 물론 최첨단에 오르게 될 래일의 우리 나라에서 실력이 없어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조국의 전진에 따라설수 없다. 청소년들이 책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빨라지고 책을 멀리하면 할수록 나라의 부흥이 떠지게 된다. 모든 청소년학생들은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그마한 짬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하며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 세상을 놀래우는 앞날의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가 될 포부와 희망을 안고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책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가정교양과 학교교양, 사회교양을 강화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책읽기를 습성화, 생활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이 온 사회에 책읽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누구나 학습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하며 사회적으로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우기 위한 옳은 방법론도 연구하여야 한다. 책읽기정형을 정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사상교양사업을 심화시키며 좋은 경험들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학습조건과 환경을 잘 마련해주는것이 중요하다.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들과 도서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전자도서들과 다매체편집물들을 더 많이 발행보급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고 높은 실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자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방법을 본받아

량강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들이 인민들속에 들어가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신데 이어 모란봉악단의 노래포성을 울려주시여 온 량강땅이 혁명열, 투쟁열로 끓어번지게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량강도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인민군대의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방법을 본받아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고조진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드세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령도밑에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을 발동시키고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던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전구들에서 보여준 인민군지휘성원들의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방법을 본받아 모든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특히 인민군지휘성원들이 진행한 군중정치사업의 다양한 형식과 내용, 방법들을 일군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모든 선전선동사업이 감화력이 큰 정치사업으로 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얼마전 백여명의 도당위원회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는 삼지연군 중흥농장으로 달려갔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은 포전에서 농업근로자들과 어울려 걸싸게 일도 하고 휴식참이면 작업장이 들썩하게 련환공연무대도 펼쳐놓으며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저녁이면 농장의 집집에 찾아가 물도 길어주고 나무도 패주고 울타리도 수리해주었으며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마주앉아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해설해주었다.

대홍단군에서처럼 종자, 물거름, 정성, 이 세가지를 틀어쥐면 능히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고, 힘을 합쳐 농장마을도 사회주의선경으로 잘 꾸려가자고 하는 도당위원회일군들의 목소리는 농업근로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해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도안의 모든 시, 군의 일군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기 위한 련속적인 사상공세를 더욱 드세게 들이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얼마전 수백명의 도급기관 일군들이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내려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들은 때아니게 싸락눈이 쏟아지는 불리한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감자심기를 하여 영농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삼지연, 대홍단, 백암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당, 행정일군들도 농장들에 내려가 인민군지휘성원들처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군중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안의 당, 행정일군들의 힘있는 항일유격대식군중정치사업은 지금 도의 대규모감자산지들에서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일군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당의 목소리, 우렁찬 혁명가요가 높이 울리고있다.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최대로 고조되고 감자산지들간 맹렬한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지는 속에 감자심기가 례년에 없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철도를 힘있게 지원

강원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을 발전시키자면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철도지원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도안의 책임일군들이 직접 현지를 밟아보며 철길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근로자들에게 철길의 강도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알려주는 한편 표준철길수준에 이른 구간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시,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이 철길보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도에서는 철길구간의 자갈보충과 주변의 도랑정리를 진행하여 철길강도를 보다 높일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철길고착품들과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철도운수부문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 짜고들고있다.

천내군에서 철도지원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맡은 구간에 대한 철길보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올해에만도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진행하고 군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철길구간의 자갈보충과 로반정리사업을 근기있게 내밀도록 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철길구간들에 있을수 있는 불비한 개소들을 찾아내여 짧은 기간에 없애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원산시에서는 철도부문의 일군들과 함께 철길순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퇴치하도록 하고있다.

문천시에서는 올해에만도 많은 철길고착품과 기공구들을 마련하여 철도부문에 보내주는 한편 철길관리에서 앞장서고있는 단위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판교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도 모두가 떨쳐나 철길관리에 애국의 한마음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도무역관리국을 비롯한 도급단위들에서도 철길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구간을 표준철길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물을 모조리 잡아 더 많은 전력을

서두수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물을 더 많이 잡는것과 함께 발전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전력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것과 함께 현존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에서는 수력구조물보수에 힘을 넣어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하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언제와 수로점검을 진행한데 맞게 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이와 함께 무봉양수장 양수기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언제보수를 위한 돌격대가 조직되고 능력있는 일군들이 여기에 망라되였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언제보수공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함경북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많은 량의 공사용자재와 물자들을 보장해주어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크게 고무해주었다.

언제보수공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와 함께 발전소에서는 부족되는 부속품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면서 무봉양수장 양수기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였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양수장에서 많은 량의 물을 더 퍼올릴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발전소의 기본언제에 더 많은 물을 잡아 전력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발전소에서는 그 기세로 취입구수로와 언제보수공사를 동시에 힘있게 내밀었다.

발전소책임일군들은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는 한편 전투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가물철에도 많은 량의 물을 잡을수 있게 해놓았다.

서두수발전소에서는 발전기들의 중, 소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수력구조물관리를 더욱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고있다.

발전소적인 전력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2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물관리를 과학화하고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짜고들어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1호발전소와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수력구조물관리를 짜고들고 높은 수위운전을 보장하면서 많은 량의 전기를 생산하고있다. 특히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주변압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의 대보수를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홍단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보수를 깐지게 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더 많은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선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주체문학예술의 전통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창작공연되던 력사의 나날을 더듬어

지난 4월 우리 혁명의 발원지이며 항일전의 나날 전민항쟁의 보루였던 력사의 땅에서 높이 울린 모란봉악단의 우렁찬 음악포성은 지금도 커다란 진폭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을 뒤흔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진행된 모란봉악단의 공연, 어버이수령님의 령도따라 피어린 항일전에서 용맹떨치던 빨찌산녀대원들의 기상으로 량강땅만이 아닌 온 나라를 세차게 뒤흔든 공연은 그대로 항일혈전의 나날 인민들을 나라찾는 싸움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의 포성을 쾅쾅 울리던 초연의 무대들을 방불케 하였다.

아름드리거목도 지심깊이 뻗어나간 뿌리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으로 들끓는 온 나라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고무추동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을 절감할수록 그 영원한 생명선이며 원동력인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창작공연되던 항일혁명투쟁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이 뜨거운 추억속에 돌이켜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혁명투쟁을 시작하시던 첫 시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학예술을 통한 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쓰신것처럼 항일혁명시기의 예술은 암흑을 불사르는 등불이라고도 할수 있었으며 사람들을 투쟁의 길로 부르는 북소리라고도 할수 있었다.

한편의 훌륭한 시나 연극, 소설이 천만대중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을수 있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간직하신 철리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 혁명활동시기는 물론 일제와 혈전을 벌리던 그 준엄한 나날에도 몸소 붓을 드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문학예술을 통한 사상사업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3인1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 《지주와 머슴군》,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경축대회》, 《아버지는 이겼다》, 《승냥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하신 다양한 주제의 명작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였다.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게 한 힘있는 포성이였으며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로, 주체의 문학예술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으로 되였다.

주체16(1927)년 겨울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송에서 진행하신 활동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왔다고 할수 있는것은 연예선전대의 활동이였다.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연극들이 바로 그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시고 그이의 지도밑에 공연된 작품들이다.

문학예술을 통한 교양사업은 사상사업의 다른 형식으로 대신할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과 위력을 가지고있다. 문학예술작품의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혁명투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혁명연극 **《3인1당》**은 파벌싸움에 눈이 먼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 작품이다.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통합회의를 질질 끌면서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을 일삼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3인1당》**을 창작하시였다.

공연준비가 다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부통합회의에 참가한 민족주의자들을 공연에 초청하시였다. 처음에는 연극이 재미난다고 좋아하던 그들은 점차 연극이 자기들을 풍자한것임을 알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달아나버렸다.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였다. 세정승이 자리다툼을 하다가 룡상을 마사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연극 **《3인1당》**은 파쟁은 망국이고 단결은 승리라는 진리를 밝혀주었던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 혁명정세는 인민들로 하여금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과 **《지주와 머슴군》, 《꽃파는 처녀》** 등은 착취계급에 대해서는 그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고 반드시 무장을 들고 맞서싸워야 한다는 사상, 세상에 믿을것은 자기의 힘밖에 없다는 주체의 사상적내용과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사람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교양수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무장투쟁을 주류로 하여 조국해방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이런 새로운 현실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사상전의 한 형식으로 연극을 창작공연하도록 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작된 연극들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바다》**를 창작하시게 된 기본동기는 《간도토벌가》에 있었다. 일제에 의하여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참혹한 운명앞에 순종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일제와의 항쟁을 계속하고있는 우리 인민, 특히 삼강오륜과 삼종지도에 구속당하던 녀성들까지도 일제와의 투쟁에 떨쳐나선 감동적인 모습을 목격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생된 남편의 뒤를 이어 혁명의 길에 나선 조선녀성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의 창작을 구상하시였다.

백두산을 향해 어려운 행군을 하는 휴식참에도 그리고 대원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등잔불을 벗삼아 한자 또 한자 대본을 완성시키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대본이 다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리동백선생에게 보이시였는데 대본을 읽고난 그는 이거면 됐다고 하면서 원고뭉치를 들어 공중에 휘젓고는 그대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극대본을 써주시기만 하면 무대형상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해나섰던 그는 배우선발에서부터 연출작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갑순이역을 맡은 녀대원은 연극을 한다고 하니 눈살이 꼿꼿해지고 말도 별스럽게 하였다. 아무리 달래고 추어주고 화까지 내며 별수를 다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토벌대장놈의 역을 맡은 중대장은 차라리 토벌대장 몇놈을 잡아오라면 잡아왔지 그런 놈들의 흉내는 입이 더러워질가봐 안 내겠다고 선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갑순이역을 맡은 녀대원에게 그가 조국과 간도에서 실지로 체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주시면서 이 연극은 바로 동무같은 사람들이 겪은 생활을 엮은것이다, 왜놈들이 쏴죽인 을남이는 동무의 친동생이다, 생각해보라, 방금전까지 누나, 누나 하던 동생이 무참히 쓰러졌는데 왜 누나의 가슴에서 원한의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토벌대장놈의 역을 맡은 중대장에게는 역을 잘하는것이 동무의 전투과업이라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혁명연극 **《피바다》**가 처음으로 공연된 곳은 백두산아래의 첫 동네인 심심산골의 화전민부락 무송현 만강마을이였다.

연극은 시작되자마자 만강사람들을 놀래웠다. 무대우에 자기들이 겪어온 생활과 꼭같은 생활이 펼쳐지자 그들은 가슴을 움켜쥐고 연극의 세계에 끌려들어갔고 갑순이와 함께 울고 어머니와 함께 부르짖었다. 한 로인은 연극이라는것도 잊고 무대에 뛰여올라가 을남이를 쏘아죽인 《토벌대장》의 이마를 장죽으로 후려치기까지 하였다. 혁명연극 **《피바다》**가 처음으로 공연된 그날 만강사람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 숨결소리를 들으니 도무지 잠을 이룰수 없었다고, 참으로 비상한 예술의 힘앞에서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두메산골 까막눈이던 젊은이들, 늙은이들을 계몽하고 교양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적극적인 참가자로, 후원투사로 개변시키고 만강을 믿음직한 후방기지의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만강에서의 연극공연이 거둔 특출한 성과가 있었다.

일제의 인민탄압도구인 《자위단》에 들었던 한 청년의 반변과정을 보여주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도 적의 주구단체들에 들어가 신음하고있는 각계층 인민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는 사상전의 포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이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사상적무기였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투쟁의 진리, 혁명의 진리를 새겨주고 세계의 많은 인민들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는데 그 위대한 생활력이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반세기도 훨씬 넘는 이전에 창작되였지만 오늘도 항일의 승전포성마냥 천만군민의 심장을 뒤흔든다.

문학예술을 시대를 선도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보고 사상의 미싸일들을 련속 발사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투쟁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년대와 년대를 이어 오늘도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주체의 신념, 선군의 의지를 꺾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쓸어버리며 약동하는 조선의 기상을 반영한 모란봉악단의 참신한 노래들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울려나오고 이 노래들과 더불어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창조하신 주체적문학예술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선군시대 문학예술과 더불어 위대한 **김정은**시대는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선전사업방법도 가르쳐주시며

목마른 사람에게 어디 가면 물을 마실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처럼 사람들이 알고싶어하는것, 듣고싶어하는것을 당정책에 립각하여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선전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한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가슴에 새길수록 피어린 항일의 나날 선전사업방법을 몸소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숭엄히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에서는 사상사업이 언제나 첫째가는 중대사로 나서고 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사상사업의 위대한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주체22(1933)년 3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하에 전투를 승리적으로 치른 부대는 유격구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한 산중에 이르러 잠시 휴식하게 되였다.

대원들은 자리에 앉아 총을 닦는가 하면 고향이야기도 하고 혁명가요도 불렀다. 그러나 한 대원만은 이 휴식의 한때마저 아껴가며 산비탈에 홀로 서서 웅변련습을 하고있었다. 그는 얼마전까지도 자기는 말재주가 없고 아는것이 없어 선전사업만은 못하겠다고 하던 대원이였다.

그 대원은 수림을 향하여 뭐라고 웨치다가는 한손을 높이 쳐들기도 하였다.

그때 휴식장소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광경을 보게 되시였다.

그에게로 다가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 일이든지 이렇게 하려고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신 후 지금 동무가 하는 연설을 듣고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수 없었던 대원은 자기는 지금 수림을 향하여 연설을 해보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거야 자신께서 왜 모르겠는가고 그의 말을 긍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동무의 연설을 듣는 대상인 군중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걸 묻는것이라고,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는가, 그들의 표정은 어떠한가, 듣고 감동하며 호응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모르면 안된다고 하시였다.

순간 대원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시며 저 나무들을 보면서 인민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누구에게 어떻게 고역을 당하고 탄압을 받으며 고문과 학살을 당하는가, 이것을 잘 알기만 하면 그들의 얼굴뿐만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곧 동무의 마음으로 될것이라고 알기 쉽게 일깨워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대원에게 그러면 동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동무가 연설대상자로 삼은 사람들중에는 로인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 유격대가 어떠한 군대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적들의 허위선전에 넘어가서 우리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부터 알려주어야 하겠는가고 하시였다.

선전사업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차근차근 깨우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일제가 어째서 나쁘고 우리 인민은 누구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며 어떻게 해야 조국을 찾아 잘살수 있는가, 우리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누구를 위해 피흘려 싸우는가, 지금은 일제놈들에게 속아서 우리를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이라도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우리를 지지하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려고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는가, 이러한것들부터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하는 선전이고 교양입니다. …

그 대원의 눈앞은 삽시에 환해졌다. 이제는 막힐것도 모를것도 없을것 같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가르쳐주신 선전사업방법은 우리 사상일군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이다.

혁명의 북소리,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오늘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전국을 들끓게 할 때 이 땅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더 활짝 꽃펴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가 있은 후 사상생활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이 현저히 달라졌다.

책임일군으로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꾸준히 학습하며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습득하고있다. 당생활년한과 맡겨진 혁명임무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사상생활에서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관점이 일군들의 가슴마다에 꽉 차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력사적경험은 누구를 물론하고 조직사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지 않고 학습을 잘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상생활은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상생활이다.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잠시라도 중단하면 머리에 녹이 쓸게 되고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상생활에 자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사상단련의 용광로속에서 자신들을 열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려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사상사업에서는 《특수》가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고 특수화되면 썩기마련입니다.》

세상에 고정불변한것은 없다. 사람의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어제날 공로를 세운 일군이라 해도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상생활을 게을리하면 머리에 잡사상이 쉬를 쓸게 된다.

혁명가들은 머리에 사상적공백이 생기는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사상적공백은 사상적인 변질을 낳게 된다. 때문에 사상적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일군들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사상정신적수양을 쌓는데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당에서 맡겨준 임무에는 특수한것이 있을수 있지만 사상생활을 게을리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몰라도 되는 《특수》란 우리 당안에 있을수 없다. 특수한 단위일수록 사상사업을 더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사상적량식을 섭취하기 위한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매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당조직 사상생활에 언제나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당조직으로부터 분공을 받아 어김없이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사상의지적으로 단련해나가야 한다. 학습회, 강연회를 비롯한 정규생활을 부담시하고 잘 참가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상적으로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반당의 길로 굴러떨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참가규률을 엄격히 지키며 학습계획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굴러가는 돌에도 이끼가 낀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사상단련의 용광로속에서 자신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며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심장깊이 새기며 선군시대 혁명적예술인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국립연극단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인 민 들 속 에 서

몸소 찾아주신 생산장성의 예비

지 영 명

《나의 사상을 알려거든 나의 일터와 나의 기대, 나의 제품을 보라!》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애국의 열정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 구호를 대할 때마다 나는 남달리 깊은 생각에 잠기군 한다.

한것은 이 구호가 나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수십년전의 그날을 돌이켜보게 하기때문이다.

주체62(1973)년 1월 14일 저녁이였다.

그날은 일요일이였는데 당시 공장의 기사장으로 사업하면서 새해 첫 전투를 벌리고있던 나는 야간교대의 생산보장을 위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있었다.

그런데 한 일군이 다급히 달려오더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에 오신다는 뜻밖의 소식을 알려주는것이였다.

나는 순간 당황함을 어쩔수 없었다.

공장의 다른 일군들은 다 퇴근하고 지휘성원이란 나 혼자뿐인데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찾아오신 수령님을 모시기에는 공장의 형편이 말이 아니였던것이다.

구내에는 전날에 내린 눈을 쳐내고 쌓아놓은 눈무지가 여기저기 있었고 어떤 직장앞에는 눈이 멎은 다음에 실어내갈 작정으로 쌓아놓은 기계밥무지가 한가득 길을 막고있었다. 매 직장들의 생산문화형편도 말이 아니였다.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서성거리다가 급히 공장책임일군들에게 련락을 띄우는 한편 가공직장으로 달려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몇가지 종류의 치차들을 전시해놓았다. 그리고나서 정문쪽으로 가다가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의 가공직장앞도로에 승용차를 세우고 내리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쩔바를 몰라 주춤거리고있는 나에게로 다가오시며 **《수고합니다.》**라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나는 너무도 당황하여 그이께 인사는커녕 자기 소개조차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다.

한 일군이 이 공장 기사장이라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고나서 **《여기는 무엇을 하는 직장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그제야 나는 자신을 다잡고 위대한 수령님께 여기는 가공직장이며 여러가지 부속품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더니 직장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가공직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직장안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에게 공장에서 뜨락또르부속품을 몇종이나 생산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하여 말씀올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런데 천정이 높은데 비해 조명과 난방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어둑컴컴한 작업장안에서 로동자들이 기대마다 작은 조명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진행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한 수행일군이 전지불로 앞을 비쳐드리였다.

전지불빛에 미장한 곳이 패여져나가 울퉁불퉁한 바닥과 기대주변의 여기저기에 널려져있는 쇠밥들이 언뜻언뜻 드러날 때마다 나의 얼굴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늘 생산만 생산이라고 하면서 생산문화를 세우는 사업을 등한히 해온 우리들의 그릇된 일본새가 그 전지불빛에 낱낱이 드러났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람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직장에서 가공한 각종 치차들을 진렬해놓은 진렬대앞에 이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중의 하나를 집어드시고는 치차로구만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물으시였다.

《이것이 어디에 쓰는 부속품입니까?》

그것은 변속기치차이고 다른것은 기관부분의 치차라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들을 주의깊게 들여다보시며 **《치차를 몇종이나 생산하고있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나는 12종의 치차를 생산한다고 보고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혼자말씀처럼 **《치차를 생산하긴 하는구만.》**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치차에 대하여 관심을 모으시는데는 그럴만 한 사연이 있었다.

그즈음 평안남북도안의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새해농사차비정형을 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많은 뜨락또르들이 치차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 도에 내려오시는 길로 먼저 우리 공장을 찾으신것이였다.

손에 기계기름이 묻는것도 아랑곳 않으시고 치차를 드시고 이리저리 살펴보시면서 언제부터 치차를 생산하는가, 한해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걸음을 옮기시면서 넓은 직장의 내부를 둘러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직장의 면적을 알아보시고나서 **《굉장한 건물이구만. 설비가 몇종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내가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만하면 능력이 많다고 하시더니 듬성듬성 설치되여있는 기대들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시고는 밖으로 나오시였다.

그러시고는 포장도 하지 않고 제대로 거두지도 못한 구내길을 걸으시며 나직하신 음성으로 나에게 물으시였다.

《동무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이번에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라고 물으시였다.

나는 자체로 공부하여 기사자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더니 **《이 공장에는 언제 왔습니까?》**라고 또 물으시는것이였다.

주체46(1957)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한다는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면 초기부터 일하는구만.》**라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아마도 공장을 잘 꾸리지 못해 주눅이 든 나의 마음을 풀어주시려는 듯싶었다.

하지만 다른 직장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이렇게 여러 직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묵묵히 공장구내를 거니시다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여기에 어디 이야기할만 한 곳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우리가 변변한 방이 없어 머밋거리고있는데 도당책임일군이 도당회의실에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

우리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도당회의실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밤이 퍽 깊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지배인에게 도안의 뜨락또르대수와 부속품보장정형을 알아보시고나서 기계들에 만부하를 걸어 우리 도는 물론 다른 도들에도 부속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그러자면 얼마나 더 할수 있겠습니까?》

지배인은 잠시 무엇인가 생각해보더니 위대한 수령님께 설비가 더 요구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며 지금 설비들이 놀고있지 않는가고 하시는것이였다.

사실 지금 있는 설비들로써도 만가동을 보장하기만 하면 공장앞에 제기되는 부속품생산과제를 수행하고도 남을것이였다. 하지만 우리 일군들은 생산과제가 더 제기되면 이렇게 무턱대고 설비대수를 늘일 생각부터 앞세웠던것이다.

지배인은 자책감으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 우리들이 로력관리를 잘못하여 지금 적지 않은 설비들이 서있다고 잦아드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공직장을 돌아보니 기계설비들이 많이 서있던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다.

나는 좀 주저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강로는 로력이 다 보장되여 제대로 돌아가지만 가공부문은 로력이 긴장하여 설비를 다 돌리지 못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혼자말씀으로 **《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더니 정말 로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규률이 없어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가고 따져물으시였다.

내가 실지 로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족한 로력이 몇명입니까?》**라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말씀올리는 인원수를 수첩에 적으시고나서 이번에는 작년에 부속품생산계획을 왜 수행하지 못하였는가 알아보시였다.

그 전해에 우리 공장에서는 부속품생산의 중량상계획과 지표별계획을 모두 미달하였는데 나는 제나름으로 작업조건을 충분히 지어주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업조건이라는것은 무엇입니까? 자재입니까, 무엇입니까?》**라고 또 물으시였다.

나는 우선 선철이 부족하고 주물용석탄을 자체로 생산하여 보장하다나니 발열량이 낮아 애를 먹고있으며 다음으로 합금주조에 들어가는 일정한 량의 유색금속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였다.

생산이 잘되지 않는 원인을 주관에서 찾을 대신 작업조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있다고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수령님께 이런 외람된 말씀을 드렸던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부족되는 자재들의 수량을 수첩에 하나하나 받아적으시고나서 공장의 관리기구와 인원별업무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앞락에 손을 얹으시더니 오늘 공장을 돌아보고 공장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은 기계설비들도 많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높기때문에 생산을 잘할수 있는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에서 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하면 황해북도뿐아니라 뜨락또르부속품공장이 없는 다른 도들에도 뜨락또르부속품을 대줄수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잘 관리운영하지 않아 공장이 깨끗하지 못하고 생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보기에는 이 공장에서 생산이 잘되지 않는 원인은 우선 공장을 잘 거두지 않은데 있다고 하시면서 방금전에 돌아보신 직장들의 한심한 실태를 다시금 렬거하시였다.

3면으로 계속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 떨치자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각지 당조직들에서

우리 당을 억세게 떠받드는 초석인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명시된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를 강화하자》는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는데서 힘있는 사상정신적무기로 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실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지난해 1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전우로 준비시키는것입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들이 당원들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전우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에 대한 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당원들이 앞장서도록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고있다. 얼마전 항일유격대식배낭을 메고 도안의 농촌들에 내려간 도당위원회와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원들의 심장마다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만경대구역, 중구역, 사동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구역안의 모든 당세포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학습열풍을 일으켜 모든 당원들이 로작의 사상과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고있다.

평안남도와 강원도안의 당조직들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벌려나가고있다. 평성시, 안주시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별문답식학습경연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있다. 통천군, 원산시, 문천시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초급일군들이 세포안의 당원들속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전형단위를 옳게 설정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통하여 모든 당세포들을 쇠소리나는 당세포로 만들며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혁명의 년대마다에 언제나 한마음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락원의 10명당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평안북도안의 당세포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락원의 10명당원들을 배출한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들이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충실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고있다. 룡천군당위원회에서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몸소 당세포총회를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장산협동농장 제7작업반 당세포를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군안의 당조직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 억세게 준비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편지를 올려 영광의 친필서한을 받아안고 첫 충성의 당세포의 영예를 지닌 5국 2세포 당원들의 숭고한 충정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큰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당세포로 만드는데서 창성군을 본보기로 내세우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을 창성군안의 당세포들에 파견하여 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신의주시, 정주시당위원회와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도 최근년간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급속히 늘이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큰결음을 내짚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2.8직동청년탄광을 본보기로 하여 충성의 당세포대렬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벌리는 과정에 당원들을 투철한 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나가는 전위투사로 준비시키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들이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조직사상생활지도를 짜고들도록 하고있다.

대홍단군과 삼지연군에 내려간 량강도당위원회 일군들은 제대군인들의 당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실속있게 도와줌으로써 당세포들이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척후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삼수군, 백암군안의 당세포들은 당원들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신천군, 재령군, 은률군당위원회를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세포비서들을 위한 강습과 보여주기, 경험교환회를 매달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고있다.

성천군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부서 일군들에게 당세포들을 일일이 분담해주고 일군마다 《당세포도와주기수첩》을 가지고다니면서 당세포들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함으로써 당원들을 우리 당의 진정한 전우, 동지로 준비시키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안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모든 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우리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참된 전사, 제자들로 키우기 위한 각급 당조직들의 조직정치사업은 날로 심화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믿음과 정은 사람을 키운다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

구성시도시건설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믿음과 정을 주면 누구나 혁신자로,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당세포비서들에게 실천적모범으로 배워주며 이끌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는 위대한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워 당중앙위원회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쌓아야 합니다.》

사업소에서 선반공이 귀한 때에 다른 단위에 있던 한 로동자가 새로 들어오게 되였다.

초급당비서 리성중동무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기술기능을 파악해보았다. 수준이 매우 높았다. 말은 일도 말없이 착실하게 하는 그를 알게 되였을 때 초급당일군의 기쁨은 컸다. 그에게 작업반장사업을 맡겼으면 좋을것 같았다. 그런데 당초급일군들은 사업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그에게 작업반장사업을 맡기기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는것이였다.

이런 당초급일군들에게 초급당일군은 그 동무는 일에서 성실하고 기술기능수준도 높기때문에 작업반장사업을 맡기고 잘 이끌어준다면 사업소에서 큰 몫을 해제낄 동무라고, 크고 단 참외가 뚝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무슨 당초급일군들이겠는가고 하면서 그 동무가 작업반장사업을 하도록 믿음을 주었다.

그 동무는 사업소에 들어온지 오래지 않은 자기에게 작업반장사업을 맡겨준 당조직의 믿음이 고마와 더욱 성실하게 일을 해나갔다. 그럴수록 초급당일군은 당세포비서와 함께 그가 사업소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는데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보장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품을 들여 이끌어주었다.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이끌어준 사실은 이뿐이 아니다. 압연직장의 한 작업반장과 건설2직장의 한 초급일군도 초급당조직과 당세포의 믿음속에 사업소의 기둥으로 성장했다. 당조직에서는 이렇게 한명한명을 믿어주고 이끌어주며 품들여 키웠다.

실천과정을 통하여 당세포비서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느끼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 잘해나가게 되였다.

믿음과 함께 따뜻한 정을 주면 당을 따르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진다는것이 이곳 초급당일군들의 확고한 주견이다.

압연직장의 김동무는 재간이 좋은 동무였다. 그런데 가정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지 못하여 생활이 다른 종업원들보다 펴이지 못하였다. 이런 사정은 직장일에까지 영향을 주고있었다. 당세포비서도 이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일군은 당세포비서와 함께 자주 그의 집을 찾아가 살림살이를 잘하도록 친정어머니의 심정으로 관심해주었고 그가 앓아누워있을 때에는 그 병에 좋다는 보약도 들고가군 하였다. 직장초급일군들을 발동시켜 살림집의 낡은 출입문도 다시 만들어 달아주고 생활필수품도 마련해주도록 하였다.

자기를 위해 초급당일군과 당세포비서가 뜨거운 정을 기울이는데 감동된 김동무는 살림살이도 깐지게 하고 건강관리도 잘하여 맡은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였다.

지난해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선발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의 일을 놓고서도 서로 위하는 일군들의 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 지배인 허창호동무는 그런 대회에는 기사장을 꼭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고 기사장 정용철동무는 강재생산에서 중요한 유도로를 개조하기 위해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설비동력부원을 꼭 보내야 한다고 완강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소당조직에서는 설비동력부원을 대회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니 그때 당사자인 설비동력부원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그는 일군들의 이런 뜨거운 진정을 가슴에 소중히 안고 대회에 참가한 기간에도 유도로개조안을 무르익히였고 대회장에서 돌아와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유도로개조를 끝내 성공시키게 되였다.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서 당세포비서들은 사람들에게 정을 줄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력이 폭발된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믿음과 정은 사람을 키운다.

이것은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과 당세포비서들이 실천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본사기자 리 종 석

우리 당세포비서

천길땅속의 보석파도 같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뒴뒴에 반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당세포비서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세포비서〉, 〈세포비서아바이〉는 세포비서에 대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존경과 사랑, 믿음의 표시입니다.》

며칠전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마스크제작실 김교윤동무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피타는 사색과 이악한 실천으로 이미 9년전에 박사의 학위를 지닌 그는 커다란 감회를 안고 말하였다.

《지금도 이따금 박사학위증서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다잡게 되고 속으로 채찍질하게 됩니다. 실력전의 앞장에, 최첨단돌파전의 선두에는 응당 당초급일군인 제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사의 학위를 받은 당세포비서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여서 그런지 몇갑절 의미깊고 여운이 컸다.

당세포비서로서 학위나 명예칭호를 지닌 사람들의 삶의 자욱자욱에는 성공이라는 의미만으로는 다 헤아릴수 없는 비상한 자각의 세계가 있다.

취재길에서 만난 당세포비서들중에는 박사만이 아니라 로력영웅도 있었고 인민교원, 공훈탄부, 공훈광부 등 만사람의 부러움의 눈길을 모으는 학위나 명예칭호를 지닌 당세포비서들도 있었다. 그들이 지닌 학위나 명예칭호마다에는 그 어떤 말이나 호소보다도 실천으로 대중을 감화시키고 이끌어야 한다는 당초급일군으로서의 성스러운 자각을 가지고 자신을 초불처럼 태우며 헌신해온 낮과 밤들이 어려있다.

하기에 그런 당초급일군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온 사상교양사업들은 대중속에서 큰 실효를 나타냈으며 몇백배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그렇다.

당세포비서들에게는 당초급일군임을 나타내는 증서가 따로 없다. 하지만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참된 당세포비서들에게는 그 어떤 증서에도 비길수 없는 커다란 영예와 값높은 칭호가 있다.

그것은 대중의 한결같은 존경과 사랑에 의하여 얻게 되는 더없이 소중한 칭호인 우리 당세포비서, 바로 이 친근한 부름인것이다.

본사기자 장 철 범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답게

청진제강소 회전로직장 원료1작업반 당세포에서

당의 숭고한 믿음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수천수만의 당세포들속에는 청진제강소 회전로직장 원료1작업반 당세포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당세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당정책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언제인가 원료보장전투를 진행하고있던 작업반앞에 뜻하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기세좋게 돌아가던 무연탄원판공급기의 전동기가 고장나 원료투입이 중단되고 그로 하여 회전로를 멈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것은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작업반에 있어서 치명적인 일이였다. 전동기를 시급히 수리하는것과 함께 그 기간에 회전로를 멈추지 않기 위해 인력으로 원료를 보장해야 하였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최대한의 육체적능력을 발휘하여 한번에 수백kg의 원료를 회전로에 장입하면서 전동기의 수리를 끝내야 했던것이다.

바로 이때 현장에서는 당원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회전로를 지켜내기 위한 당적분공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우리 당원들이 앞장에서 돌격로를 열어나갑시다!》

세포비서의 말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에 비낀 비상한 의미를 당원들은 잘 알고있었다.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할 매우 책임적인 전투였던것이다. 이어 작업반원들을 둘로 갈라 력량을 편성하고 회전로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작업반장 고문수동무는 고장난 설비를 퇴치하는 전투를, 당세포비서 배현우동무는 원료운반전투를 맡았다.

적은 인원으로 한번에 수백kg에 달하는 원료를 회전로에 보장하는 전투와 전동기의 부분품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전투가 동시에 벌어졌다. 긴장한 전투의 한초한초가 흘렀다. 원료운반전투원들은 땀을 비처럼 쏟으며 견인불발의 의지로 원료보장전투를 진행하였고 설비보수전투원들은 부분품을 해체하고 고장원인을 찾아 퇴치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당원협의회에서 토의한대로 회전로를 순간도 멈춤이 없이 돌리며 고장난 전동기도 제때에 수리하여 가동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차고넘치였다.

당원들의 이런 불같은 열정이 폭발되는 속에 드디여 설비고장을 퇴치하고 회전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는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되였다.

전투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회전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였다는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영웅적위훈이 어찌 총폭탄이 작렬하는 전장에서만 떨쳐진다고 하랴.

그날도 평범한 날이였다. 하지만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당적분공을 훌륭히 수행한 그날처럼 이곳 세포당원들의 하루하루는 값높은 위훈으로 흐르고있는것이다.

이런 날과 날들이 모여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당세포의 위력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본사기자 최 영 길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생산자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 전차직장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세포비서의 날 운영을 잘하여

증산군식료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세포비서들의 수준을 높여주어 모든 당세포들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세포비서의 날을 실속있게 운영하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얼마전 세포비서의 날을 운영할 때였다.

초급당비서 정세영동무는 당세포비서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는데서 대중의 앞장에서 달려나가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월사업계획을 당세포의 실정에 맞게 잘 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기 쉽게 깨우쳐주었다. 이와 함께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당세포비서들의 경험발표회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비서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당세포를 쇠소리가 나는 전투조직으로 꾸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2면에서 계속

우리들은 깊은 자책과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당시 우리는 생산문화를 세우는것은 생산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릇되게 생각하면서 공장이 조업한지 10여년이 되도록 건물보수와 기계의 정비, 수리를 품놓고 해본적이 별로 없었다. 하여 전후복구건설로 나라에 한푼한푼이 귀하던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귀중한 자금을 내여 마련해주신 건물들과 기계설비들이 못쓰게 되여갔으나 그것을 가슴아파할줄도 몰랐다.

어수선한 공장의 실태는 곧 우리들의 사상상태의 반영이였다.

우리들이 공장의 주인, 기대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없이 되는대로 일하다나니 수령님의 업적이 깃든 공장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꿰뚫어보시고 여기에 생산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던것이다.

결국 생산장성의 예비는 자재나 설비를 더 보장받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상을 발동시키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사리원뜨락또르부속품공장은 력사가 오랜 공장입니다. 나는 이 공장이 정전직후에 건설한 첫 뜨락또르수리공장이기때문에 잘 관리운영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와보니 그렇지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화의 나날에 벌써 우리 나라 농촌을 기계화할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여러곳에 뜨락또르양성소를 꾸리는 한편 내각결정을 하달하시여 뜨락또르수리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도록 하시였다.

이 현명한 조치에 따라 정전후 곧 사리원에 우리 공장의 전신인 뜨락또르수리공장이 건설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관리일군들과 기능공들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 실습생들까지 보내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공장은 조업하자마자 튼튼한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전국에 손꼽히는 뜨락또르수리공장으로 되였으며 1960년대 중반기에는 전문적으로 뜨락또르부속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되였다.

그런데 농촌에서 기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뜨락또르의 대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그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부속품을 생산보장하여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와서 우리 공장이 제구실을 바로하지 못하여 이렇듯 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였던것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장의 지휘성원들인 우리들이 주인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운영사업을 해나가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타까우신 어조로 지금 농촌에서는 부속품이 없어 뜨락또르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뜨락또르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다고, 일군들이 뜨락또르부속품생산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죄책감으로 몸둘바를 몰라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이 공장에서 생산을 늘이자면 생산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뜨락또르부속품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도자체수요는 물론 부속품공장이 없는 도들의 수요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자면 생산문화를 세우는 사업에 응당한 낯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공장을 깨끗이 잘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창문에 유리도 넣고 못쓰게 된 문짝도 고치며 공장안팎을 알뜰하게 꾸려야 합니다.》

나는 수령님의 그 말씀을 나의 이 심장속에 새기는 심정으로 한자한자 받아적었다. 그러면서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생산문화를 잘 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우리 공장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는 공장으로 만들자고 굳게 마음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도의 책임일군들에게 도에서도 이 공장을 잘 도와주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뒤 우리 공장에서는 사람도 설비도 작업환경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났다.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로동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기계설비들이 알른알른한 모습을 드러내고 직장별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작업장과 마당에 쌓여있던 오물들은 자취를 감추었으며 훈훈하고 밝고 깨끗한 작업장에서 로동자들은 신바람나게 기대를 돌리며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은 생산문화를 세우는 사업은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이며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비상히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절감하였다.

오늘 온 나라에는 자강도로동계급이 창조한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를 본받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일터와 기대를 알뜰히 거두며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 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에서 나는 대중의 사상을 발동시키는데 생산장성의 예비가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주체98(2009)년 6월

방문기

어디에나 흐뭇한 남새작황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 남새온실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가 사리원시 대성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를 반겨맞은 농장관리일군이 지금 농장의 남새온실에서 남새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안내하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부식물입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지난해 도가 달라붙어 건설한 현대적인 비닐박막온실들에서는 잎남새수확이 한창이였다.

온실호동들마다에 펼쳐진 통진 봄배추며 싱싱하게 자란 쑥갓, 부루 등 갖가지 남새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였다. 우리와 만난 분조장 강복화동무는 지금은 잎남새수확이 한창이지만 얼마후이면 오이, 도마도를 비롯한 열매남새들도 수확하게 된다고 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1호동에 들어서니 포기마다 달린 오이들이 한창 자라고있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당의 은정이 하루빨리 가닿게 하려는 일념으로 추운 겨울에 씨를 뿌리고 모를 옮기며 아글타글 애쓴 관리공들의 노력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어 우리가 들린 7호동에는 포기마다 빨갛게 익은 도마도들이 주렁져있었다. 그 어느 호동을 돌아보아도 마음이 흐뭇하였다. 바로 이날을 위해 이곳 관리공들이 바친 노력과 정성은 그 얼마였던가. 10여가지의 남새품종을 시기별로 심고 가꾸며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던 나날들…

흐뭇한 작황을 이룬 남새작물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조장은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여 남새를 많이 생산하여 사리원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새농사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현대적인 남새온실들이 일떠서고 이렇듯 훌륭한 작황이 펼쳐졌으니 저희들은 더 높은 남새생산으로 그 은덕에 보답할 마음뿐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까지 합쳐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우리의 가슴은 젖어들었다.

우리가 온실을 나서는데 배추와 시금치, 쑥갓을 비롯한 남새들을 한가득 실은 뜨락또르들이 발동소리 울리며 온실정문을 나서고있었다.

신선한 남새들을 받아안고 기뻐할 시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 발동소리에 실려오는것만 같아 이곳 남새온실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은 절로 즐거워졌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 천 일

우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창작가, 예술인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데 있습니다.》

며칠후 평양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진행되게 된다. 주체문학예술의 강화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력사에 또 하나의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뜻깊은 대회를 맞으며 우리는 시대의 명작과 더불어 인민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값높은 삶을 돌이켜본다.

태양을 노래한 혁명시인

조기천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버이수령님을 서사적화폭의 중심에 높이 모신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창작한 혁명시인이다.

해방직후 꿈결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시인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을 안고 백두산현지체험의 길을 떠났다.

오랜 세월 쌓이고쌓인 락엽에 무릎까지 빠지고 진대나무들이 가로세로 넘어져 길은 무척 험했으나 그는 쉬임없이 백두산마루로 오르고 또 올랐다.

귀기울이면 금시라도 산천을 뒤흔드는 백두산의 호랑이소리 들려오는듯싶은 혁명전구에서 그는 곰팽이 어렸던 붓끝을 육박의 창끝인듯 고루며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를 단숨에 써내려갔다. 현지체험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즉시 방대한 작품의 초고집필을 며칠사이에 끝냈다.

이렇게 되여 완성된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나오자마자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여러차례에 걸쳐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해 뜻깊은 회고의 말씀을 하시였다.

조기천은 그후 시대를 민감하게 반영한 서사시 《생의 노래》 등을 써내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고무하였다. 특히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정시 《조선은 싸운다》, 가사 《문경고개》를 비롯한 시가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대중적영웅주의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평범한 로동자가 이름난 작곡가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정을 더해주며 세기를 이어 온 누리에 울려퍼지고있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평범한 로동자였던 20대의 청년 김원균이였다.

당시 절세위인에 대한 매혹과 흠모의 정으로 심장을 끓이던 그는 비록 음악을 전문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에 대한 노래를 자기가 직접 작곡하고싶은 불같은 열망을 안고 송가창작에 온갖 심혈을 쏟아부었다.

음악기호를 오선지에 그려넣었다가 다시 지우기를 그 몇번, 하지만 그는 신심을 잃지 않고 오래동안의 긴장한 전투를 벌려 끝끝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훌륭히 작곡하였다. 그후 그는 《애국가》를 비롯한 명곡들을 창작하여 해방후 우리 나라 음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혁명송가 가운데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제일 좋다고 하시며 김원균동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하나만으로도 한생에 할 일을 다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의 창작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세계적인 대문호

백인준선생은 50여년간 수령결사옹위의 붓대, 지성과 량심의 필봉을 억세게 추켜들고 눈부신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생전에 여러권의 시집과 수십편의 영화문학, 근 10편의 가극대본과 희곡, 100편이 훨씬 넘는 가사들과 평론, 수필 등을 내놓았다.

세계문학사의 갈피를 들추어보면 백인준선생처럼 그렇듯 거의 모든 문학종류의 글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도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작품들을 많이 내놓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당과 숨결을 같이해온 그는 당에서 시와 노래가 필요하다고 하면 시와 가사를, 영화와 연극이 필요하다고 하면 혁명적인 영화문학과 희곡작품을, 가극이 필요하다고 하면 혁명가극대본을 즉시즉시 명작으로 써내군 하였다.

그는 영화혁명의 포성이 울리던 나날에 영화문학 《성장의 길에서》를 훌륭히 창작하여 문학예술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하였으며 가극혁명의 나날에는 노래를 절가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관철에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수령형상영화작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작들을 기동성있게 창작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백인준동지는 우리 당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던 위대한 인간이라는 친필을 보내주시여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쥐고 문필활동에 온넋을 바친 그의 생을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였다.

재능있는 화가

오래동안 당과 수령을 붓대로 굳건히 받들어온 재능있는 화가들속에는 정관철동무도 있다.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주체미술사의 갈피에 자랑스러운 한페지를 남겼다.

그후 그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보천보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신 후 군중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유화 《보천보의 홰불》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년대마다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주체미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단 한번의 실패도 모른 영화배우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명배우로 이름떨친 유원준동무는 예술영화 《내 고향》으로부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 이르기까지 50여년동안에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였다.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한 그는 그후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형상하기 위해 수십년세월 피타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왔다.

그는 예술영화 《산정의 수리개들》의 촬영당시 60을 가까이 한 나이였지만 아찔한 철탑우에 자주 오르군 하였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서 로동계급의 불같은 성격과 행동의 유연성을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80을 가까이 한 불편한 몸임에도 뻐스를 마다하고 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다.

하나하나의 화면들을 기름진 명화면으로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한 결과 그는 수많은 영화들에서 세계적인 명배우로서의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다.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을 아는 배우》, 이런 아낌없는 찬탄속에 유원준동무는 언제나 인민의 사랑을 받았다.

본사기자 방경찬

주체문학예술사의 갈피를 더듬어

세계가극계를 뒤흔든 5대혁명가극

5대혁명가극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창작완성된 20세기 문예부흥의 대표작들이다. 혁명가극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는 한편한편이 모두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나 거대한 생활력과 영원불멸할 생명력에 있어서 세계가극예술사상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혁명과정에 창작된 우리 식의 새 가극들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세상에 출현한 때로부터 수백년을 이어오면서 사회계급적제한성과 낡고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세계가극예술실태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우리 식의 가극을 창조하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무대우에 옮기는것으로 가극혁명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게 하시였다.

5대혁명가극의 창조과정은 곧 낡고 뒤떨어진 기성리론과 형식을 전면적으로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우리 식의 가극을 탄생시키는 과정이였으며 참다운 인간학으로서의 가극예술이 나아갈 길을 등대처럼 밝혀주는 고전적본보기가 마련된 과정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인민대중의 본질적인 요구와 미학정서적지향과는 인연이 없이 예술지상주의에 머물러있던 창작관념을 배격하고 사상성과 예술성을 완벽하게 결합시키였으며 듣고 부르기 까다롭고 대사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대화창이나 아리아대신 아름답고 통속적이면서도 극중인물의 내면세계와 작품의 기본사상을 보다 섬세하고 명백하게 보여주는 절가형식, 형상의 폭과 깊이를 훌륭히 안받침하는 방창이 새롭게 도입되였다.

진부하고 도식적인 무대구성관례와 극작술을 깨뜨리고 흐름식립체무대미술과 다양한 수단들이 결합되여 작품의 감화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새로운 극전개방식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이 출현하고 단순히 생활반영의 한 요소로 쓰이던 무용이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였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결합되고 속도전의 원칙과 집체성의 원칙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5대혁명가극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련이어 완성되여 세인을 경탄시키였다.

5대혁명가극의 창조는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펼치고 인류가극예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5대혁명가극의 창조와 함께 모든 예술창작과 창조활동에서는 일대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인류문예사가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고귀한 전통과 실천적본보기가 마련되였다.

창조된 때로부터 지난 40여년간 5대혁명가극은 비상한 정서적감화력과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투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혁명의 진리, 계급투쟁의 위대한 철리를 밝혀주고 자주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조국관, 문예관을 력사적화폭과 함께 보여주는 작품들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면서 우리 인민은 물론 수많은 나라 국가및 정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혁명가들, 진보적인민들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명실공히 《조선에서만이 창조될수 있는 최고봉의 예술》, 《혁명투쟁의 산 교과서》로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조금도 변할줄 모르는 5대혁명가극의 영원한 생명력과 더불어 주체예술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11일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손님들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매일 많은 버섯을 생산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에 능력이 큰 버섯공장이 일떠섰다. 모든 생산공정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갖추어진 버섯공장에서는 지금 매일 많은 량의 버섯을 생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풀먹는집집승을 많이 기르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버섯도 많이 재배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방대한 버섯공장건설을 빠른 기간에 해제낄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버섯공장건설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다. 능력있고 내밀성있는 일군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부령합금철공장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이 건설을 맡아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조직사업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주 현지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설비제작과 원료보장대책을 앞세우도록 하였다.

건설지휘부일군들은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 성과적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버섯공장건설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부령합금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방대한 토량처리를 짧은 기간에 진행하고 여러 건물의 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내외부미장과 지붕공사를 질적으로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진시당위원회에서는 광범한 대중을 버섯공장건설에로 적극 불러일으키였다.

포항, 수남, 송평구역을 비롯한 구역들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5만여장에 달하는 보도블로크를 짧은 기간에 생산한데 이어 구내길포장과 록지조성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꼈다. 청진화학섬유공장과 시, 군들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살림집과 공장합숙건설을 다그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도시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탁아소, 유치원, 살림집건설설계를 훌륭하게 완성하였으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건설된 버섯공장에서 생산되는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은 지금 도안의 주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인 자랑찬 성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은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고 대외적권위를 높이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힘찬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체육인들은 최근에만도 제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2014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 2014년 국제체조련맹 기계체조도전컵경기대회, 2014년 국제빙상동맹 세계발전컵빙상휘거경기대회,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경기에서 우승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였다.

조선판이 된 태권도경기무대

지난 4월 네팔에서 진행된 제7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태권도선수들이 또다시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쳤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25개와 우승컵 5개를 쟁취하고 나라별종합순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한 이번 대회는 말그대로 조선판이였다.

지난 시기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모습을 보여준 공훈체육인들인 박미향, 김수련, 홍범선수들은 강의한 정신력과 평시에 련마한 높은 육체기술적능력을 발휘하여 이번 대회의 해당 몸무게급과 단체맞서기경기들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통쾌하게 이겨 여러 나라 태권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우리 남녀선수들은 단체특기경기에 출전하여 제시된 5개의 목표들을 완전격파함으로써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박미향선수는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맞서기경기뿐아니라 1단계인틀경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경기들에서 우승함으로써 6개의 금메달과 녀자기술상을, 라경훈선수는 2단계인틀경기와 맞서기경기에서 2개의 금메달과 남자기술상을 수여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감독들, 태권도애호가들을 놀라게 한것은 우리 선수들이 남, 녀단체맞서기경기와 거의 모든 남녀몸무게급 맞서기경기들에서 우승한것이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에는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장경옥감독, 공훈체육인 김성국감독과 선수들이 이번 선수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식의 훈련방법과 맞서기기술, 경기전술완성을 위해 아낌없이 뿌려온 애국의 땀방울들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우리 선수들이 거둔 혁혁한 경기성과를 두고 찬탄의 목소리들이 끝없이 울려나왔다.

따쥐끼스딴태권도감독은 《선수권대회의 금메달 32개중 25개를 조선선수들이 쟁취하였는데 정말 경이적인 일이다. 우리는 조선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된다는 소리만 들어도 긴장해지는것을 어쩔수 없다. 특히 조선선수들의 맞서기기술과 육체적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아시아태권도련맹의 한 인사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태권도모국에서 온 조선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보니 감탄을 금할수 없다. 이번 선수권대회 남, 녀맞서기경기 14개 세부종목에서 13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쟁취한것은 정말 력사에 없는 일이다. 조선의 태권도를 당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건군절날에 높이 올린 공화국기

지난 4월 25일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레스링선수권대회의 녀자레스링 55㎏급 결승경기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나서는 선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앞서 진행된 경기들마다에서 맞다드는 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물리친 우리 나라의 정인순선수였다.

당의 은정속에 압록강체육단과 국가종합팀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육체기술적능력을 튼튼히 다져온 정인순선수는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었다.

몽골선수와의 결승경기는 시작부터 치렬했다. 육체적능력이 좋은 상대선수는 경기시작부터 검질기게 달려들었다.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지는 속에 두 선수가 각각 4점을 받은 가운데 경기마감시간을 점점 가까이 하고있었다.

그때 정인순선수는 결승경기에 출전하기에 앞서 김은룡감독이 하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인순동무, 오늘은 4월 25일, 우리의 건군절이야. 이걸 꼭 명심하라구.》

정인순선수의 가슴속에서는 필승의 의지가 더욱 솟구쳐올랐다.

—내 기어이 우승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리라.

자기의 특기기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기를 더욱 신심있게 운영해나간 정인순선수는 마침내 몽골선수를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뜻깊은 건군절날 이역의 경기장에 높이 오르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는 정인순선수의 가슴속에서는 무한한 행복의 격정이 세차게 파도쳤다.

승리의 개가는 체조경기에서도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흐르바쯔까에서는 2014년 국제체조련맹 기계체조도전컵경기대회가 진행되였다.

국제체조련맹 기계체조도전컵경기대회는 국제체조련맹에서 지난 시기 세계체조선수권대회와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의 선수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경기대회이다.

이번 경기대회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계체조선수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룬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시기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나라의 공훈체육인 강영미선수가 이번 2014년 국제체조련맹 기계체조도전컵경기대회 고저평행봉경기에 참가하였다. 예선경기를 거쳐 강영미선수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본선경기에 출전하였다.

강영미선수는 다리모아봉뛰여넘기를 비롯한 난도높은 동작들과 내려디디기동작을 완전무결하게 수행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다.

장중하게 울리는 애국가의 선률속에 높이 오르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강영미선수는 이렇게 맹세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는 더 많은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이겠습니다.)

최근 우리 선수들이 여러 국제경기무대들에서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소식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있으며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주령봉

대중은 실력있고 내밀성있는 일군을 따른다

2중3대혁명붉은기 해운탄광 지배인 오영환동무

해운탄광은 그리 크지 않은 기업소이다. 해마다 석탄생산계획을 150% 수행, 아담하게 꾸려진 문화후생시설들과 공원을 방불케 하는 탄광구내, 2중3대혁명붉은기와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쟁취…

오늘 기업소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된 자랑찬 성과의 바탕에는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대중을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로 이끌어온 오영환동무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10여년전 탄광지배인으로 임명받은 오영환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과연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을가. …)

어느날 그는 종업원들앞에 탄광전망도를 펼쳐놓으며 말하였다.

《건물공사와 갱건설을 동시에 진행합시다.》

종업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불과 몇십명밖에 안되는 로력으로 건물공사와 갱건설을 동시에 내민다는것은 보통배짱으로써는 엄두도 낼수 없었던것이다.

《우리가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거요.》

집단의 단합된 힘으로 탄광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는 그의 호소는 종업원들을 분발시켰다.

—한가지, 백가지 일을 해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이것은 오영환동무가 늘 외우며 실천에 옮기는 좌우명이였다.

탄광의 모든 일을 설계하고 작전하자니 결정적으로 실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다.

그는 실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시간을 아껴가며 기술서적들을 탐독하기도 하고 갱건설과 관련한 하나의 기술적문제를 놓고 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건물의 설계를 위해 여러 단위를 다녀온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렇게 지새운 밤은 몇십, 몇백밤이던가.

피타는 사색과 열정으로 쌓은 실력의 탑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오영환동무는 갱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도 휴식도 잊고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였다. 그러느라니 입술이 부르트고 손바닥에 물집이 생겼다. 하지만 탄광의 밝은 래일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조금도 힘든줄 몰랐다.

애써 노력한 보람이 있어 그들은 불과 6개월만에 전망이 좋은 새 갱을 건설하여 석탄생산에 들어가게 되였다.

이신작칙은 오영환동무의 체질화된 사업기풍이다.

현행석탄생산을 보장하면서 3년분의 굴진작업을 선행시킨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어느해 여름날 저녁이였다.

탄광은 다음날에 계획된 평양견학준비로 여느때없이 흥성이였다. 그런데 날이 저물도록 지배인이 보이지 않았다. 굴진공들은 생각되는것이 있어 막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그런데 지배인이 착암기를 틀어잡고 발파구멍을 뚫고있는것이 아닌가.

《평양견학을 앞두고 발파구멍 하나라도 더 뚫고싶었소.》

굴진공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들은 모두 다시 착암기를 억세게 틀어잡았다.

몇해전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세울때였다.

지배인은 일부 일군들이 현행생산에만 신경을 쓰면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지배인의 생각은 깊었다.

—보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힘으로 일터를 보란듯이 꾸리자.

이렇게 결심한 지배인은 탄부들의 생활에 편리하게 사무실과 휴계실, 목욕탕 등을 갖춘 2층짜리 탄광건물을 새롭게 일떠세우고 물질적토대를 더 튼튼히 쌓을 통이 큰 목표를 제기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떨쳐나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였다. 오영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세멘트와 철근, 목재와 건구들을 마련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그리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탄광의 건물, 공무기지 등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이 과정에 탄광은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탄광에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아름찬 목표이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확신하고있다.

—우리 탄광에는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일군들이 있다. 이런 일군들과 함께라면 무슨 목표인들 점령하지 못하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명보

오영환동무(가운데)

독자의 편지

세상에 부럼없어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의 육아원과 애육원을 돌아보신 혁명활동소식을 텔레비죤화면에서 접하던 날 저는 격정속에 잠들수 없었습니다.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부터 저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고싶은 소박한 마음에서 부모잃은 아이들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고 보답의 맹세를 굳게 다지던 그밤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어찌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얼마후 시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이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군들은 가정에서 준비한 학용품을 내놓으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불편한 점이 없는가 하나하나 물어보며 저를 고무해주었습니다.

올해 양력설에도 시당책임일군은 집에 찾아와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것을 알고는 가정에서 솜옷도 마련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날 저의 집을 찾아온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 아이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훌륭히 키우자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밤 저는 자식들과 함께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 인민들모두가 사랑하는 그 노래는 오늘도 이 땅 어디서나 높이 울려퍼지고있습니다.

덕천시 역전동 43인민반 김춘옥

그 어떤 《북소행》설도 침몰되는 《박근혜난파선》을 절대로 구조해내지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대변인담화

남조선당국이 또다시 동족대결각본인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들고나와 온 민족을 격분시키고있다.

지난 8일 남조선군부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들, 무인기전문가들의 참가밑에 그 무슨 《과학기술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4월 14일부터 20여일간 진행하였다는 이 《조사결과》라는것은 론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해괴한 모략대본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조사결과》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한다면 무인기의 발진과 복귀지점이 《북쪽》이라는것, 비행계획과 사진촬영경로가 《일치하다》는것 등 지난 4월 11일의 《중간조사결과》의 재판일뿐이다.

오히려 저들이 발표한 《중간조사결과》가 얼마나 허위와 기만으로 일관되였는가 하는것만을 더 뚜렷하게 스스로 드러내보였을뿐이다.

그때는 무인기리륙지점에 대해 온천비행장이요, 옹진부근비행장이요 하면서 한입으로 두입, 세입소리를 해대더니 이번에는 그것마저 부정하고 개성 북쪽이요, 어디요 하고 외워대고있다.

사진들에 찍힌것이 남조선대상물들이기때문에 《북의 무인기》로 확정된다고 주장한것은 백치들에게나 통할지 모를 억지이다.

기억기에 입력된 자료를 통하여 모든 진상을 확증했다고 한것도 그러하다.

초기에는 해독문제가 수월치 않다고 공식 시인하면서 앞으로 결과를 영원히 확정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은 그 당사자들이 언제 그랬던가싶게 기억기를 통해 입력좌표를 얻어내고 그에 근거하여 《북소행》을 립증했다고 하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기억기내용을 변경조작하거나 자기에게 필요한것을 재입력하는것쯤은 초학도라고 해도 손바닥을 뒤집는것처럼 수월하다.

《조사》라는 미명밑에 무인기출처확인의 최대요점으로 되는 기억기를 가지고 20여일간이나 무슨짓을 했는가는 험한짓만 골라하는 모략가들이나 알 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사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군부의 몇몇 음모군들을 엄선하여 은밀한 곳에서 《해명》하지 않고 만인이 공인할수 있게 처신했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이 지난 4월 11일 《무인기사건》의 《중간조사결과》발표놀음을 통하여 사건의 《북소행》추정을 잠정결론하였을 때에도 터무니없는 《모략극》에 불과하다는데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사실자료들로 세상이 납득할수 있게 그 진상을 까밝힌바 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북의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있다면 남조선의 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과 공동조사하여 한쪼각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사도 표시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호응해나올 대신 《남남분렬조성용》, 《대남심리전용》이라고 악의에 찬 소리로 무작정 우리를 헐뜯어댔다.

지어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이 최종확증되면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폭언까지 줴쳐댐으로써 북남대결과 무력충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하였다.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애당초 꿈도 꾸지 않았던것이다.

조사결과가 얼마나 날조되였는가 하는것은 기억기가 분실되여 사진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한 삼척무인기까지도 이번에는 발사지점과 사진촬영경로가 《북소행》이라는것을 확증했다고 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하긴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당시 전혀 있어본적이 없는 《북 잠수정경로》까지 날조해낸 전과자들이고 보면 이제는 발사지점이나 《경로확증》따위를 만들어내는것쯤은 손쉬운 일감으로 될것이다.

남조선군부가 모략과 《날조극》조작에 신성한 과학기술을 악용하기 위해 전례없이 《과학기술조사결과》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조작된 무인기를 믿으라는것인데 차라리 안보이는 귀신을 믿겠다.》, 《국방부가 이렇게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가.》, 《추락했으면 왜 프로펠러는 멀쩡할가? 또 마후라는 왜 이리 깨끗할가? 연구해야 할 일입니다.》와 같은 야유조소가 남조선전역에서 쏟아져나왔다.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당국이 무엇때문에 이미 민심의 외면을 받은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한사코 다시 들고나오며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는가에 대해 밝히지 않을수 없다.

무엇보다 온 남조선땅이 초상집으로 화하고 울분에 찬 절규가 그대로 《대통령탄핵》요구로 번져지고있는 최악의 《정권》위기가 닥쳐오자 그로부터의 출로를 《무인기사건》에서 찾아보려는데 박근혜패당의 어리석은 속심이 있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온 남조선천지가 려객선 《세월》호침몰사고로 하여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그가 누구든 정상적인 사고기능을 가졌다면 나어린 학생들이 생죽음을 당한 사상초유의 특대형해상참사부터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의 목숨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랭혈인간들인 박근혜와 그 일당은 고의적으로 특대형불상사를 빚어낸데 대해 아무런 가책도 없이 거짓위로와 책임떠넘기기에 몰두하다 못해 《조문연출극》까지 꾸며내는 파렴치한 행위만 거듭 일삼아댔다.

박근혜일당이 침몰한지 20일이 훨씬 넘은 오늘까지 실종자확인을 비롯한 사고수습에는 아랑곳없이 뒤골방에서 동족을 모해하고 대결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북소행》설날조에 매달린것은 천추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애어린 자식들을 물고기밥으로 내던진 《유신》후예의 매몰찬 랭기에 격분한 민심은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대통령탄핵》운동에 총궐기해나서고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의 배척을 받는가 하는것은 항간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자면 당국의 말을 거꾸로 받아들여야 한다.》, 《박근혜의 말을 곧이 듣는자는 시체와 바보뿐일것이다.》라는 낱말이 공공연히 류행되고있는것만 보아도 알수 있을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선거》까지 날조하여 세상에 보기 드문 《날조대통령》의 오명을 받은 박근혜는 격노한 민심에 의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내외여론이 《세월》호침몰사고가 《박근혜난파선》의 침몰을 가져왔다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가라앉는 《난파선》을 어떻게 하나 구원해보려는 필사적인 발악에서 나온것이 바로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하게 될 굴욕적인 패배가 확연해지자 거기에서 모면해보기 위한 출로를 《무인기사건》에서 찾아보려는것 역시 박근혜패당의 교활한 속내이다.

원래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우리와 련계시키는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려는것은 남조선당국의 체질화된 악습이다.

막다른 곤경에 빠진 상태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 박근혜일당도 례외가 아니다.

다 아는것처럼 박근혜가 집권하여 지금까지 해놓은것이란 《대선공약》파기와 《유신》독재의 부활, 반인민적정책에 의한 민생의 파탄, 동족대결에 따른 북남관계악화로 하여 수습할수 없는 심각한 《국정》위기, 험악한 안보위기를 초래한것뿐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나선자들의 개싸움과 돈봉투를 통한 금품살포, 손전화기를 리용한 여론조사조작과 같은 각종 불법, 탈법행위가 박근혜의 집권여당에 만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부정협잡선거놀음은 벌써부터 그대로 《대정치혼란》으로 번져지고있다.

이로부터 박근혜일당은 《북풍》조작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지금 《어김없이 선거철에 찾아온 〈북풍〉이다. 반갑다.》, 《급한 모양이다. 선거때가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이다. 그래서 무인기사건조작인가. 에라 개놈들아》, 《박정희때 고무신 공짜로 준다고 하면 표를 뽑아주는것과 같은 의식수준인줄로 안다. 인제는 그만들 속고 삽시다. 답답합니다. 제발…》이라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이 인터네트와 출판물들에 그대로 오르고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은 고조되는 반《정부》, 반《새누리당》역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상책으로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택한것이다.

박근혜패당이 《무인기사건》을 날조한 또 다른 음흉한 속내는 새로운 동족대결소동을 일으켜 미국상전의 비위도 맞추고 북남관계를 첨예한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데 있다.

온 남녘땅에 차고넘치는 피터지는 곡성과 아우성에는 개의치 않고 밝은 하늘색옷을 떨쳐입은 박근혜가 미국상전을 끌어들이고 갖은 아양과 교태를 다 부리며 전시작전권전환재연기확답을 받아낸것이 그 무슨 커다란 외교적인 공적이나 되는듯이 놀아댄것은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소동을 보다 광란적으로 벌리자면 새로운 《북소행》설을 조작해내야 한다는것이 바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속타산이다.

남조선당국이 《무인기사건》조사에 유독 미국무인기전문가들을 끌어들여 그 무슨 《합동조사팀》이라는것을 만들어낸것도 지금 놓고보면 거기에서 서로 작당하여 반공화국《모략극》을 고안해내기 위해서였다.

온 세계가 미국을 음모와 날조의 대명사로, 정의와 진리에 역행하는 기만과 위선의 상징으로 단죄하고있지만 유독 외세굴종, 사대매국에 눈이 어두워진 남조선당국만은 하내비처럼 떠섬기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을 우겨대면서 그것이 정전협정 제2조 16항과 북남불가침부속합의서 제1장 제2조에 위반된다고 적반하장격으로 떠들어대는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돌이켜보면 상대방을 도발자로 매도하면서 새로운 군사적침공의 구실로 내댄것은 침략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진 북침전쟁연습소동과 때를 맞춘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결코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동족보다는 외세에 추종하고 대화와 긴장완화보다는 대결과 전쟁국면조성에 매달리는 극악한 대결광신자, 전쟁미치광이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낸셈이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그토록 제창하고있는 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실히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북의것》이라는것을 비롯하여 《북소행》설을 들고나오려면 우리가 제기한 공동조사요구를 군말없이 받아물고 응해나오라는것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제 집안에서 불상사가 빚어지면 무턱대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왔다.

2011년 4월 2일 남조선《농협》(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콤퓨터망이 통채로 마비되였을 때에도, 《3.20해킹공격사건》때에도, 《GPS전파교란사건》때에도 무엇이나 《북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그때마다 우리가 요구한 공동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외세와의 합동조사에만 그토록 극성을 부려왔다.

떳떳하다면 뒤골방에서 주먹질해대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공동조사제의에 응해나와야 할것이다.

저지른 모략날조로 하여 호응할수 없는 처지에 있다면 다시는 동족을 모해하는 너절한 행위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다.

남조선당국이 제아무리 《북소행》설을 백번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다는것이다.

《북소행》설을 내돌릴수록 격노한 민심의 파도에 부딪쳐 가라앉기 시작한 《박근혜난파선》의 침몰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게 될뿐이다.

주체103(2014)년 5월 11일
평 양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삼석구역연료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구역연료사업소에서 만든 구멍탄이 제일이다.

—이런 구멍탄을 계속 공급받을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구멍탄을 받아가는 구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반영이다.

하다면 크지 않은 삼석구역연료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런 진실한 목소리는 어떻게 울려나오게 되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은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입니다.》

10여년전 삼석구역연료사업소의 지배인으로 사업을 시작한 김근서동무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더욱 그러하였다.

(당의 신임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자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느날 지배인이 종업원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툭 터놓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지금 주민들의 땔감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우리모두 힘과 지혜를 합쳐 주민용땔감문제를 기어이 풀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립시다.

지배인의 이야기는 종업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종업원들은 인민의 요구이자 자신들의 사업기준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김근서동무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우선 땔감생산능력을 높이고 생산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는 일에 달라붙었다. 녀성로력이 대부분인 사업소에서 자체로 생산건물을 꾸리면서 구멍탄생산설비들을 개건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김근서동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생산건물을 꾸리는것과 함께 종전의 기계에 비해 생산능력이 훨씬 큰 새 형의 구멍탄성형기를 만들것을 결심하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 과정에는 실패도 없지 않았다.

그는 전국각지의 여러 연료사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권양, 분쇄, 운반, 선별, 성형 등 흐름식으로 되여있는 구멍탄생산공정을 꾸리는 과정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정신은 실로 감동적이다. …

이렇듯 애쓴 보람이 있어 새 형의 구멍탄성형기는 마침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기운차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작은 건물 하나밖에 없던 곳에 백수십㎡의 생산건물과 회의실, 목욕탕이며 식당까지 훌륭히 갖춘 사업소를 바라보며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떨쳐나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느끼게 되였다.

김근서동무는 사업소의 땔감생산능력이 높아진데 맞게 저탄장의 규모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종업원들과 함께 밀고나갔다.

그는 사업소의 일이 바쁜 속에서도 때로는 인수원이 되고 상하차공이 되여 먼곳의 탄광들에 나가살다싶이 하면서 석탄을 실어들이는데 앞장섰다.

장철웅, 김관성, 김영숙, 강영옥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도 그러한 지배인을 적극 따라나섰다. 그리고 모두가 저탄장을 늘이는 일에 발벗고나섰다. …

그럴수록 김근서동무는 자기 일에서 만족을 몰랐다.

지배인은 구역안의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연소첨가제를 팡팡 생산해낼수 있는 기지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버럭을 주민용땔감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 나날 김근서동무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종업원들의 살림살이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언제인가는 수술을 받은 고급기능공 신춘봉동무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은 제대군인 종업원들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결혼상을, 그들의 부모들이 생일을 맞을 때에는 생일상도 잊지 않고 성의껏 차려주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이 바라는대로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이악하게 투쟁하였기에 사업소에서는 지난 1.4분기에 벌써 지난 시기의 일년분에 해당한 주민용구멍탄을 구역주민세대들에 골고루 공급하였다.

그러니 왜 주민들이 이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농장원들이 따르는 대오의 기수

황주군 삼정협동농장 제2작업반 반장 오남영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농업생산과 전반적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황주군 삼정협동농장 제2작업반은 농장적인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바로 여기에는 언제나 이 땅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대오의 앞장에서 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밀고나가는 작업반장 오남영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10여년전 오남영동무가 삼정협동농장 농산작업반의 반장으로 임명되였을 때였다.

《리당비서동지, 조직과 집단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동무야 제대군인이 아니요. 반장동무, 우리 마음을 합쳐 힘껏 일해보기요. 농사도 더 잘 짓고 우리 고향마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봅시다.》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날 저녁 오남영동무는 새로 만든 사업일지의 첫페지에 이런 글을 써넣었다.

—언제나 대오의 기수가 되리라!

그는 이 맹세를 지켜 헌신적으로 살며 투쟁해왔다. 농산작업반, 기계화작업반의 반장사업을 맡아보면서 그는 언제 한번 난관앞에 주저한적이 없었다.

제2작업반 반장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분조장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오남영동무는 일부 분조들에서 영농공정들이 일정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문제를 포착하게 되였다.

《총친 병사가 자기앞에 나타난 적을 소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소? 농사일도 같소. 우리가 계획된 영농공정들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고 드티게 되면 그만큼 나라의 쌀독이 비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요.》

이것이 오남영동무가 작업반 초급일군들앞에서 한 말이였다.

그는 우선 분조장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특히 분조들에서 로력일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하였다.

농장원들속에 들어가 함께 일하는 과정에 그는 분조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분조장들에게 알려주어 제때에 바로잡도록 하였다. 영농공정때마다 분조원들, 분조들사이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은 농장원들의 창조적적극성과 애국적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과정에 분조장들의 역할이 높아진것은 물론 농장원들이 분조농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보다 주인답게 일해나가게 되였으며 지난 시기에 20일이상 걸려야 한다던 작업과제들이 한주일 남짓한 기간에 수행되는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결과 작업반에서는 모든 영농공정들이 앞당겨지게 되였다.

지난 시기 작업반적인 영농공정들에서 마지막자리를 차지하던 3분조가 이제는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서 당당히 앞서게 된것도 분조장들과의 사업을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 적극 내민데 있다.

오남영동무는 모든 작업반원들이 과학농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는 작업반장인 자신부터가 앞장에 서서 언제나 학생이 되여 농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파고들었으며 모든 영농공정들이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파악하기 위하여 애썼고 모든 농장원들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는 일욕심이 많고 언제나 요구성이 높지만 생활에서는 뜨거운 인정미로 작업반원들의 맏형이 되여주군 한다. 항상 작업반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작업반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그를 누구나 따른다. 어느 농장원의 집 쌀독에 쌀은 얼마나 있고 식구는 몇인지, 집에 땔감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가 모르는것은 거의나 없다.

그에게 있어서 작업반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함께 지켜가는 진정한 전우이다.

그는 오늘도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엄명석

누구나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로

전천군 미래원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서관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모든 도서관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도서관으로 훌륭히 개건된 전천군 미래원으로는 지금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오고있다.

1층의 전자열람실들에서는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콤퓨터를 다루며 과학기술학습에 열중하고있었다. 그들의 얼굴마다에 과학기술의 높은 령마루를 기어이 점령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만만한 배심이 비껴있었다.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실 등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받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줄달음치고있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탐구의 열풍을 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갖가지 직관물을 게시한 넓은 복도며 깨끗한 휴식장소, 콤퓨터학습실과 다매체열람실 등 모든것이 학습에 편리하게 꾸려진 미래원은 안팎으로 멋쟁이건물,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였다.

우리와 만난 원장 김성희동무는 도서관에 어린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1월 전천군도서관이 정보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적인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꾸리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불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도서관은 내외부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수십대의 최신식콤퓨터들과 많은 시청각설비, 망설비와 조명기구들, 갖가지 비품들을 그쯘히 갖춘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였다.

미래원! 새겨볼수록 보다 휘황찬란한 우리의 래일이 어서 오라 부르는듯싶다.

우리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활짝 꽃펴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확신하며 미래원을 나섰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그는 오늘도 막장길을 걷는다

천마광산 직속중대 중대장이였던 김봉명동무

심심산골에 자리잡고있는 천마광산에 가면 광부들모두가 뜨겁게 추억하는 한 광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가 바로 광산직속중대 중대장이였던 김봉명동무이다.

김봉명동무는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이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광물생산을 위해 그리고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길지 않은 생을 불같이 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여러해전 김봉명동무가 일하던 탐사대가 광산의 직속중대로 옮겨앉았을 때였다. 광물생산조건은 예상외로 어려웠다. 마광기를 비롯하여 절실히 필요한 설비자재들이 걸렸던것이다.

그는 중대원들과 마주앉아 자체로 마광기를 만들 자기의 결심을 터놓았다. 그러나 중대원들은 누구도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둘러보며 김봉명동무는 낮으나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하였다.

—하자고 결심한 사람에게는 막혔던 길도 열린다는 말이 있다. 당과 조국의 부름앞에 우리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대답해야 한다.

김봉명동무의 절절한 호소는 중대원들의 가슴에 불을 달았다.

이렇게 되여 마광기를 만들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그 나날 김봉명동무는 전투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와 함께 일해온 중대원들은 중대장이 언제 잠자리에 들고 깨여나는지 별로 알지 못했다.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함마질소리와 용접의 불보라가 그칠새없는 작업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일손을 놀리는 사람도 다름아닌 중대장이였으며 철판을 비롯한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사람도 바로 김봉명동무였다.

철판으로 원통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깊은 밤 용접을 하던 한 중대원이 일손을 멈추고 김봉명동무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다.

《남들이 다 잠자리에 든 이 깊은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한다는것을 누가 알기나 할가요?》

그의 말에 김봉명동무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우리야 지하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보석처럼 살아야 할 광부들이 아니요. 이제 우리가 흘린 땀의 덕으로 광물이 쏟아져나오면 그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소.》

김봉명동무의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마침내 열매를 맺어 중대에는 자체의 힘으로 만든 마광기가 생겨나게 되였다. 그때부터 중대는 광물생산에서 광산적으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는 힘있고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몇해전 중대가 광석을 다 캐낸 채굴장을 뒤에 남기고 새 채굴장으로 옮겨가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중대원들은 누구나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였다. 그도그럴것이 새 채굴장을 타고앉으면 광물생산을 본때있게 해낼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기때문이였다.

그러나 김봉명동무의 생각은 달랐다. 어쩐지 채광장앞쪽에 광석이 남아있을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였다. 물론 거기는 언제 붕락될지 모르는 위험구간이였다.

김봉명동무는 그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굴진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중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힘이 들어도 후대들에게 이 채광장에 광물이 더는 없다고 떳떳이 말해줄수 있게 남아있는 광석을 말끔히 캐냅시다.》

그들은 동발을 세워나가며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하였다. 이렇게 여러날동안 채광장앞쪽으로 굴진하였을 때 중대장의 말대로 광맥이 나타났다. 김봉명동무의 생각이 맞았던것이다.

탐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모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후 김봉명동무는 마지막광맥까지 말끔히 캐내고야 기쁜 마음으로 다른 채굴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바로 이런 사람이였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였기에 그의 수수한 작업복 량쪽주머니에는 언제나 시료를 떠야 할 돌들이 가득 차있었고 손에는 항상 못정과 마치가 쥐여져있었다.

교양실을 비롯하여 중대의 건물을 새로 일떠세울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이른새벽 건설장에 나온 중대원들은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미장칼을 든채 잠에 든 김봉명동무가 눈에 띄여서였다.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이 중대원들에게 눈물겹게 안겨왔다. 때로는 미장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질통을 지고 대오의 앞장에서 쉬임없이 달리는 중대장은 말그대로 돌격전의 기수였다.

짧은 기간에 일떠선 멋진 건물에 새살림을 펴던 날 중대원들은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일군과 함께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지금도 중대원들은 자기들의 다심한 어머니가 되여 따뜻이 돌봐주던 김봉명동무를 눈물을 머금고 추억하군 한다. 남달리 인정미넘치고 정서가 풍부했던 중대장이였기에 늘 일때문에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뛰여다니다가도 중대원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의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중대원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달리기, 축구, 배구경기를 조직하였다는 이야기로부터 광부는 건강해야 일을 잘할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앓는 기색이 있는 중대원이 있으면 병원으로 떠밀던 사실들도 사람들은 잊지 않고있다.

김봉명동무는 이렇게 불같이 살다가 생을 마치였다.

그러나 당의 부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광물생산을 늘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쳐가던 그의 애국의 자욱은 수천척지하막장에 지금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그렇다. 김봉명동무는 광물생산을 위해 헌신의 땀을 묵묵히 바쳐온 지난날처럼 오늘도 중대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그들과 함께 막장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한원

민심을 등진 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끝장내야 한다

재앙의 화근, 천벌맞을 악의 무리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가는 학생 325명을 비롯하여 근 500명이 탔던 《세월》호에서 구조된 인원은 고작 170여명이고 나머지사람들은 단 한명도 살려내지 못하였다. 현재 약 200명정도의 시신을 건져냈는데 나머지는 아직 건지지조차 못하였다. 30m깊이에 가라앉은 배도 끌어올리지 못하고있다.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을 바다속에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침몰사고야말로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사고현장과 가까운 팽목항에서는 생때같은 자식들을 한날한시에 잃은 부모들의 통곡소리가 지금도 그치지 않고있다. 그들은 당국이 《내 자식을 버렸기때문에 나도 당국을 버리겠다.》고 하면서 박근혜패당을 절규하고있다. 얼마전 팽목항을 다녀온 남조선의 한 주민은 새벽 1~2시가 되면 피해자유가족들이 텅빈 바다를 바라보며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름을 부르면서 목놓아 울고있지만 그 자리에는 당국관계자가 한명도 없다, 부모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부》는 없었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비난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애를 쓰는것도 주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한다.

하다면 박근혜패당은 과연 무엇을 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박근혜는 대참사이후 며칠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위기관리체계》니 뭐니 하며 사태의 책임을 아래것들에게 넘겨씌우는 한편 《세월》호침몰이 전쟁연습에 따른 급격한 항로변경때문이라는 주장을 류언비어로 몰아대면서 사회적혼란을 야기시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느니,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댔다. 이어 사고수습을 위한 구조작업에 신경을 쓸 대신 미국의 피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여 잔치를 베푸는 망동을 부리였다.

정수리에 부은 물은 발뒤꿈치로 흐르기마련이다. 집권자부터가 이러니 그아래것들도 남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놀아대며 별의별 해괴한 추태를 다 부리였다. 구조현장을 돌아본다고 하면서 나온 괴뢰당국자들과 공무원들은 피해자유가족들의 슬픔은 전혀 아랑곳없이 사망자명단앞에서 기념촬영을 시도하였는가 하면 의자우에 놓여있는 구급약품들을 밀어내치고 그 자리에 앉아 즉석국수를 처먹고는 지방자치제선거와 관련한 선전통보문까지 보내여 여론의 강한 비난을 자아냈다. 자진하여 구조작업에 참가한 민간잠수부들에게서는 잘못되면 당국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아내는 짓을 했는가 하면 자식들을 구원해달라고 애타게 호소하는 피해자유가족들을 《미개한 국민》이니 뭐니 하는 악담으로 모독하였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이 려객선침몰사고를 동족대결에 악용하고있는 사실이다. 《데일리저널》편집위원이라는자는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북의 소행》일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단호한 보복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극우보수론객으로 악명을 떨치고있는 지만원이라는자는 《세월》호침몰참사를 《국가전복》의 거대한 불쏘시개에 비유하면서 박근혜에게 제2의 《5.18반란》에 지금부터 빨리 손을 써야 한다고 미친듯이 선동하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한기호는 실종자유가족들의 청와대항의방문시도소식이 전해지자 《드디여 북에서 선동》의 입을 열었다느니, 이제부터 《북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싸이버테로분자들이 《정부전복작전을 전개》할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망발을 줴치면서 정보원이 좌파세력을 모조리 색출해 제거해야 한다고 야단쳤다.

박근혜와 그 패당이 온갖 패륜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두벌죽음을 가하는것으로도 부족하여 저들의 무능과 반인민적처사가 빚어낸 비극적참사의 책임마저 우리에게 들씌우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은 괴뢰들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며 동족대결에 환장한 민족반역의 무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박근혜패당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우리까지 함부로 걸고드는것은 또 한차례의 요란한 《종북》소동으로 《세월》호침몰사고로 인한 분노한 민심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최악의 집권위기를 모면하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려는 범죄적술책이다. 인민들이야 죽든살든 관계없이 권력만 유지하고 반공화국대결흥계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 바로 이것이 《국민행복》을 운운하고 북과 남의 《신뢰》를 떠든 박근혜의 반역정치이다.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재앙의 화근, 천벌맞을 악의 무리이다.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능력도 의사도 없고 북남대결로 겨레의 머리우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이런 반역의 무리를 과연 살려둘수 있겠는가.

인민들은 반역통치배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다. 민심을 버리는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스르며 반인민적악정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박근혜패당에게 어떤 비극적운명이 차례지겠는가 하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본사기자 심철영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투쟁 전개

남조선 《KBS》, 《CBS》방송, 《련합뉴스》에 의하면 8일 남조선 각지에서 대형참사와 관련한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세월》호침몰사고로 재난을 당한 유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KBS》방송사에 몰려가 롱성투쟁을 벌렸다.

유가족들은 방송사보도국장이 려객선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수가 년간교통사고에 비해볼 때 그리 많은것이 아니라고 망발한데 대해 격분을 터쳤다. 그들은 보도국장의 파면과 방송사사장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다음날 새벽까지 롱성을 이어갔다.

롱성투쟁후 유가족들은 《박근혜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웨치며 청와대로 향하였다.

공안당국이 청와대주변에 13개 중대의 경찰병력을 투입하고 앞길을 가로막자 그들은 《길을 열라.》고 절규하며 완강히 맞서 싸웠다.

이날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 나타났던 《KBS》방송사 관계자들은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한편 남조선의 인천사회복지보건련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성원들은 인천해양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려객선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의 특별조사도입과 《국회》청문회를 주장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경기도 안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진상규명만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례우로 된다고 하면서 17대과제를 발표하였다.

종교단체들과 야당들도 《세월》호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와 기자회견들을 가지였다.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8일 광주시를 비롯한 전라남도의 곳곳에서 《세월》호참사를 초래한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광주시 금남로에서 시민단체관계자, 교원, 학생, 회사원 등 1 500여명이 광주시민궐기집회를 가지고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주장하였다.

한편 전라남도 려수 등 18개 시, 군에서 초불집회가 진행되였다.

8일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생들은 서울 광화문주변에서 기습시위를 벌리고 박근혜《정권》퇴진과 《세월》호참사에 대한 특검도입 등을 요구하였다.

같은 날 한신대학교, 경기대학교,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대학생들이 기자회견들을 통해 《세월》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내각이 총사퇴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남조선인권단체들 려객선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40여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련석회의가 려객선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주장하여 9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가던 도중 경찰의 저지를 받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의해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들이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에 왔다고 밝혔다.

《KBS》방송사측이 《세월》호참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곡보도하고 승객들의 죽음을 혼한 일로 모독하다 못해 나중에는 유가족들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몰아댄것은 현 《정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눅잦히기 위해서라고 까밝혔다.

경찰 역시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을것》을 강요하였다고 하면서 공안당국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가로막았다고 단죄하였다.

현 집권자의 태도는 유가족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사고의 진상규명을 거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호소문은 유가족들의 항의행동에 련대하여 각계가 려객선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한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

민심협박에 나선 괴뢰패당을 규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7일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민심을 협박하는 괴뢰패당을 규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최근 교육부 장관이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류언비어를 류포시키는 학생들을 처벌한다는것을 학교들에 지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한 교원을 징계하겠다고 떠벌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장이 인터네트에 《이번 사태의 유일한 답은 박근혜의 사퇴다.》라고 쓴 글을 올린데 대해 《공무원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느니 뭐니 하면서 삭제할것을 내리먹이였다고 단죄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학생전원구조를 떠든게 누구이고 120명 잠수부가 동시에 물속으로 투입될것이라고 거짓말을 한게 누구인가.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것은 누구인가.

선내진입에 실패하고도 성공하였다고 거짓말을 한게 누구이며 재벌에게 잠수독점권을 주는 대신 민간자원잠수부의 구조활동을 막은게 누구인가.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있다는 거짓말을 한게 누구이고 박근혜책임론이 높아가자 여론을 오도함으로써 단서를 은폐하려 한게 과연 누구란 말인가.

바로 《정부》다.

려객선에 탄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300여명의 꽃다운 생명을 물속에 가두더니 학생들의 동요가 우려되자 입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다. 박근혜《정권》의 세상이니 인터네트와 국민들도 입닫고 가만히 있는게 좋을것이라고 협박한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부질없는 헛공사

려객선침몰사건으로 온 남조선땅이 죽가마 끓듯 하는 판에 며칠전에는 괴뢰경찰당국이 유치한 망동을 부려 내외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일인즉 경찰이 며칠전부터 피해자유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을 봉쇄하고 기자들의 출입을 가로막은것이다. 하여 체육관의 기자석은 텅텅 비고 사복경찰들과 형사들만 이 구석, 저 구석에 밤고양이처럼 도사리고앉아 슬픔에 우는 피해자유가족들을 죄인감시하듯 살피고있다고 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지금 남조선에서는 려객선침몰사고와 구조작업과 관련한 보도가 사회의 첫째가는 관심사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피해자들의 운명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언론취재를 막을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방해하고있으니 이런 천벌맞을짓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박근혜패당은 모름지기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당국에 대한 각계층의 비난여론을 막아보자는 심산인것 같은데 과시 무지한 독재광의 《묘안》이 아닐수 없다.

비극은 그런 망동이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 될뿐이라는것을 괴뢰들이 모르는데 있다. 려객선침몰사고와 관련한 괴뢰당국의 무능과 무책임, 패륜패덕행위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그런 졸렬한 놀음으로 눅잦힐수 있겠는가. 괴뢰경찰이 귀막고 방울채는 격으로 언론활동이나 통제하여 시정배들의 구린내나는 몸뚱아리를 감추어주려 하는것이야말로 부질없는 헛공사이다. 그런것을 두고 거적으로 바람을 막겠다는것만큼이나 어리석다고 한다.

박근혜패당은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도 려객선침몰사고의 책임을 회피할수 없으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은정철

인간이기를 그만둔 패륜패덕한들에게 철추를!

아이들의 지옥에서 무슨 헌수작인가

숱한 애어린 학생들을 바다속에 수장한 남조선에서의 려객선침몰사건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녀성들의 가슴을 치고있다. 그들이 왜 그런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되였는가.

《세월》호사건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비난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온다고 한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박근혜가 바로 남조선을 인간생지옥, 수많은 아이들의 무덤천지로 만들었다.

나는 이번에 어머니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희한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놀라운 전변을 보면서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 세대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처럼 행복하고 부럼없는 아이들이 그 어디에 또 있겠는가.

그런데도 박근혜패당이 누구더러 무슨 《배고픔》이니, 《추위》니, 《영유아영양지원》이니 하고 개나발질을 하며 돌아쳤으니 그 망동을 생각하면 분이 치밀어올라 견딜수가 없다.

제 집안의 불상사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미시리가 도대체 누구를 시비질하는가. 온 세상사람들이 《아이들의 왕국》으로 찬양하는 우리 공화국을 그따위 헌수작질로 모해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남을 헐뜯기 전에 제코부터 씻으라고 하였다.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숨진 남해바다의 애어린 령혼들이 두고두고 박근혜역도를 저주할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부원 김복실

썩은 제도를 만난탓이다

제주도로 수학려행을 떠난다고 좋아하며 배에 올랐다가 침몰하는 배에서 불행이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기다리래》라는 전화통보문을 보냈다는 남녘의 어린 학생들의 운명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결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랑없고 인정없는 세상, 한줌도 못되는 특권족속들이 부귀영화를 독차지하고 근로대중의 생명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는 지옥같은 세상이 바로 남조선이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박근혜와 같은 살인마들이 날치는 그런 인간도살장에 뿌려진 애어린 씨앗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라 꽃망울을 피워볼수 있겠는가.

씨앗은 품어주고 키워주는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남녘과 한지맥으로 잇닿은 우리 공화국에서는 어머니당의 따사로운 사랑속에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조국의 미래로 떠받들리우며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희망의 나래를 펴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정치에 의해 고난의 행군속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콩우유차가 거리를 누비였고 오늘은 옥류아동병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시설들이 곳곳에 일떠서 어린이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고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현실인가.

남조선에서 《세월》호침몰사건과 같은 참변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고 해도 박근혜와 같은 살인마무리, 반통일역적배들을 쓸어버리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평양북도체신관리국 부원 리금옥

너무도 대조되는 두 현실

남조선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바다에 수장되여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너무도 가슴이 섬찍해서 잠을 다 이룰수가 없었다. 바다물이 무섭게 쏠어드는 속에서 목이 터지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며 비참하게 숨져갔을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다.

내 심정도 이러할진대 생때같은 자식들을 졸지에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마 그 어린 수난자들이 우리 공화국에서 태여났다면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것이다. 만사람의 축복속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부르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라.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하늘땅이 들썩하도록 웃고 뛰여노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모습을 보며 온 세계가 부러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사랑의 정치가 펼친 희한한 현실이다. 아이들이 나라의 왕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이 아이들에게 안겨지는 우리 공화국과 같은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송도원에 펼쳐진 황홀경과 진도앞바다의 참변을 통해 세상사람들은 북과 남의 과연 어디가 아이들의 행복의 요람이고 어디가 아이들의 지옥인가를 똑똑히 보았을것이다.

남녘의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과 같은 만복을 안겨주자면 박근혜와 같은 인간백정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수동탄광 직장장 김철웅

미일동맹의 진면모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세계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를 제창할 때면 마치 서로 제 살점이라도 베여줄듯 현란한 언사를 아끼지 않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견고하고 밀접한 동맹이니 뭐니 하며 손벽을 마주치고있다.

하지만 그토록 요란하게 동맹관계를 떠드는 그들의 속구구를 보면 한갖 구유통을 마주하고 으르렁거리는 욕심사나운 개들의 속심한가지이다.

얼마전에 있은 오바마의 일본행각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 4월 오바마는 아시아행각의 로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본에 들려 려장을 풀었다.

일본은 오바마가 자기 나라를 찾아준데 대하여 감지덕지해하면서 국빈대우를 한다 어쩐다 하고 극성을 부렸다.

일본이 별스럽게 너스레를 떨면서 오바마의 행각을 집안의 큰 경사처럼 떠들어댄것은 상전에 대한 체질적인 굴종의식의 발현이기도 한 동시에 그럴만한 제나름의 속타산이 있었기때문이다.

최근년간 일본은 과거 일제의 침략력사에 대한 외곡과 군국화, 주변나라들과의 령토문제 등으로 하여 지역에서 랭대와 배척을 받아왔다.

그래도 미국만 단단히 업으면 그의 힘을 빌어 저들의 야망을 실현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한 일본은 오바마를 맞아들이는 기회에 아부굴종을 해서라도 동맹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확답을 받아내려 하였다.

그전부터 《일미동맹은 일본외교의 기축》이라고 떠들던 일본은 오바마의 행각을 계기로 《일미동맹이 진전되고있다는것을 아시아를 향해 오바마대통령이 강력히 발신하는것이 중요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부채질을 했다.

오바마도 살갑게 놀아대는 일본에 제법 큰 아량을 베풀었다.

수뇌회담이라는데서 오바마는 일본과 주변국사이의 분쟁령토에 대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의 《적용대상》이라고 공언하고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하여서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소위 동맹국에 대한 련대를 시위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사이의 아주 그럴듯 한 동맹관계의 밑바탕에 숨겨진 진속은 제나름의 리속을 채우기 위한 암투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 그것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고 자유화를 실현하여 지역경제를 추동한다는 미명하에 2005년에 출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체결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사이에는 오래동안 밀고당기는 승벽내기가 지속되여왔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협정체결에 다같이 리해관계가 있지만 저마다 자기의 리익을 절대로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협정체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지배권까지 확립하자는것이고 또한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있는 조건에서 저들의 의도대로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자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나 협정체결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것이다.

일본 역시 협정체결을 실현하는것을 국내경제를 장성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보고있지만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고 또 상전이 바라는것이라 한들 미국이 요구하는 중요 5개 품목의 자유화는 국내의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저들의 경제명맥을 지키기 위해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동맹관계의 강화니, 중요성이니 하며 《우의》를 두터이하는 속에서도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귀다툼을 하고있는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대통령자신이 직접 걸음을 하고 일본이 반색을 하면서 맞아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뇌회담이라는데서까지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미국과 일본사이의 동맹관계라는것은 바로 이렇다.

필요할 땐 붙안고 춤을 추면서도 속궁냥은 온통 상대를 얼려넘기고 등쳐먹으려는것이 미일동맹의 진면모이다.

이번에 오바마의 일본행각을 계기로 령토문제에서 일본의 편역을 들어주고 《집단적자위권》행사와 관련하여 지지를 주는 등 큰 보따리를 안겨주면서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마무리하려 한 미국이 이제 계속 뻗대는 하수인에게 어떤 태도로 나오겠는지 또 아무리 상전이고 그의 등을 믿고 산다 한들 속곳까지 벗어주길 바라는 미국의 압력에 일본이 어떻게 반발해나서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미국과 일본사이에 진정하고 공고한 동맹관계는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다는것이다.

일본을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른 대국들을 견제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기도와 미국의 힘을 빌어 그의 지지밑에 세기를 이어가며 갈망해온 재침의 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약바른 타산이 일시적인 결탁관계를 맺게 했을뿐이다.

일단 타산이 맞지 않고 자기 리익에 저촉되면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물어메치기를 할것이다.

서로를 기만하면서 자기의 리속을 채우려는 미국과 일본이 앞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본색을 드러내리라는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체결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만 지켜보아도 잘 알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아프가니스탄정세

지난 4월 5일에 진행된 아프가니스탄대통령선거에서 50%이상의 지지표를 얻은 당선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이달 14일경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2001년 9.11사건을 구실로 《반테로전》을 선포하고 이 나라를 침략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미국은 지난 10여년간 무모한 군사작전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미국의 검은손길로 하여 종족간, 분파간 무장충돌과 보복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무법천지가 되여버렸다.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반테로전》의 희생물로 되여버렸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져다준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군사적침략으로 주권국가를 덮치고 한 나라를 테로와 보복, 살륙과 파괴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버린것밖에 없다.

많은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래동안 지속되여온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나라의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할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지켜보고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 나라에서 선거결과는 그렇게 락관적이지 못하다고 평하고있다. 전국에 마련된 6 000여개의 투표소에서 1 350만명정도의 선거자들이 참가하는것으로 되여있었는데 테로와 보복의 위험속에서 약 200개의 투표소가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개표가 진행되고 잠정결과는 24일에 나왔는데 높은 지지률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것으로 하여 결선투표가 진행되게 되였다. 사람들은 이것만 놓고보아도 아프가니스탄의 민심이 미국에 의해 분산되여있다고 말하고있다.

그것은 분렬하여 통치하라는 미국의 침략수법에 의해 이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평화와 안정이 여지없이 파괴되였으며 수난과 동란속에서 인민들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는것과 주요하게 관련된다.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안절부절못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이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선거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성명을 발표하여 선거가 이 나라에서 《중요한 계기점》으로 된다.》느니, 《새 정권에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한다.》느니 뭐니 하며 설레발을 치였다.

문제는 왜 미국이 이렇게 《열성》을 피우며 앞장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철수문제이다.

미국이 주권국가들의 선거에 개입하는것은 저들의 주구들을 내세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미국은 어떻게 하나 친미정권을 조작하여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영구주둔을 위한 아프가니스탄—미국사이의 안보협정을 하루라도 빨리 체결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이미전에 그것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카르자이대통령이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그것을 다음기정권에 넘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미국은 세계여론과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을 모면하고 영구장점의 명분을 얻어보려는 속심밑에 안보협정체결을 내들었다. 협정이 체결되여 이 나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있으면 모순과 대결이 첨예화되고 나라가 분렬될 위험에 빠지게 되며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 나라 인민들이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이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이 그것을 단호히 규탄배격해나서고있는것이다.

지난해초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군대를 완전히 철수시킬듯이 요란스레 떠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스스로 저들에게 미군을 그대로 남겨두어달라고 요구할것이라고 타산했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요구에 의해 하는수없이 미군주둔을 연기하는것처럼 냄새를 피울수 있고 이 나라에서 미군이 합법적으로, 장기적으로 주둔할수 있는것이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가소로운 계책이였다. 미국이 헐하게 성사되리라고 생각했던 안보협정체결문제는 도리여 골치거리로 되게 되였다.

자칫하다가는 미국이 올해말까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면 안될수 있다. 바빠맞은 미국이 조급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어중이떠중이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아프가니스탄정권을 협박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둘중의 한길을 택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정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안보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립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인가들에 대한 공습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성사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다.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새 정권앞에는 많은 문제거리들이 나서게 될것이다. 과연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지.

미국이 저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당선되면 미군을 여전히 이 나라에 장기주둔시키고 온갖 못된짓을 다할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성사시키지 못한 협정문제를 가지고 갖은 강권과 압박을 가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강권과 전횡으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을것이며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있는 한 이 나라의 앞날은 밝지 못할것이라고 정세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ㄱ-41073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